

조 성 기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2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정 채 원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조 성 기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정 채 원

인 준 서

정채원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_____인

심사위원_____인

심사위원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 개요

본 연구는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을 고찰하고 이에 대해 인식조사를 시행하여 더 나은 음악과 교육과정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므로 연구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2009 개정 교육과정과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연구를 위한 탐구요소들을 추출하였고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연구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그것을 토대로 음악교육 전문가, 현장 교사, 음악교육 전공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 문항을 개발하여 조사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후, 실시한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목적인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결론을 제시하였다.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의 조사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내려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계설정’과 ‘실현가능성’을 고려한 음악과 교육과정 구성내용의 ‘적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설문의 응답자들은 내용체계에서부터 [음악요소 및 개념 체계표]에 이르기까지 영역별 연계성 확보와 학년군별 적절한 위계 설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였으며, 음악과 교육과정의 내용 구성이 학교현장의 시설 구비 실정이나 학생들의 수준 및 특성 등을 현실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의견을 표출하였다.

둘째, 음악교육과정 개발에 보다 많은 음악교사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현 학교현장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음악과 교육과정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음악과 교육과정 개발에 앞서 학교현장에 대한 실태조사와 현직 교사들의 인식조사 등의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음악과 교육과정을 개정하는 연구진과 협력진에 현직 교사들의 참여 비중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충분한 연구기간이 주어져야 한다.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약 4개월의 짧은 연구기간은 턱없이 부족한 기간이므로 교육과정 총론은 물론 음악과 교육과정에 있어서도 충분한 교육과정 개발기간이 주어져야만 다방면에서 보다 효과적인 교육과정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음악교육에 대한 성찰로 자구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우리 음악교육을 위한 성찰과 노력으로 음악과 교육과정, 교사의 전문성, 다양한 음악수업 컨설팅 등 현재 우리 음악교육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음악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여 보다 발전적인 음악교육의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다섯째, 집중이수제 실시 대상에서 음악교과를 제외시켜야 한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교육현장에서 교사와 학생 모두 통감하고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음악교과의 집중이수를 재고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미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이 적용된 상태에서 불가능한 조치라면 중학교 음악교과의 시수를 1개 학년에서 주당 4시간으로 몰아서 수업하는 방법보다는 중학교 3개 학년 중 2개 학년 정도로 나누어서 운영하는 방법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목 차

| | |
|------------------------------------------------|----|
| I. 서론 | 1 |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
|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4 |
| 3. 연구의 제한점 | 4 |
| II. 이론적 배경 | 6 |
| 1. 2009 개정 교육과정 | 6 |
| 가. 교육과정 개정 배경 | 6 |
| 나. 교육과정 기본 방향 | 7 |
| 다. 교육과정의 주요 개정 내용 | 13 |
| 2.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 7 |
| 가. 음악과 교육과정 개정 필요성 | 17 |
| 나. 음악과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 | 22 |
| 다. 음악과 교육과정 주요 내용 | 24 |
| 라. 음악과 교육과정 적용 시점 | 27 |
| 마. 2007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과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비교 | 28 |
| 3. 선행연구 분석 | 30 |
| III.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내용에 대한 의견 조사 분석 | 3 |
| 1. 조사 방법 및 절차 | 31 |
| 가. 조사 대상 선정 | 31 |
| 나. 조사 도구 개발 | 31 |
| 다. 조사 실시 | 34 |
| 라. 분석 방법 | 36 |
| 2. 설문조사 결과 분석 | 36 |
| 가.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목표’에 대한 인식 | 36 |
| 나.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내용체계’에 대한 인식 | 38 |
| 다.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 41 |
| 라.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음악 요소 및 개념 체계표] | 44 |

| | |
|----------------------------------------------|----|
| 다.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방법 | 4 |
| 바.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평가 | 4 |
| 사. 2009 개정 교육과정과 음악과 교육과정 전반 | 8 |
| IV.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모색 | 5 |
| 1. 영역별 문제점 도출 | 51 |
| 가. 목표 영역 | 51 |
| 나. 내용체계 | 52 |
| 다. 성취기준 | 53 |
| 라. 음악 요소 및 개념 체계표 | 55 |
| 마. 교수·학습 방법 | 55 |
| 바. 평가 | 56 |
| 사. 2009 개정 교육과정과 음악과 교육과정 전반 | 5 |
| 2. 영역별 개선방안 | 58 |
| 가. 목표 영역 | 58 |
| 나. 내용체계 | 58 |
| 다. 성취기준 | 59 |
| 라. 음악 요소 및 개념 체계표 | 59 |
| 마. 교수·학습 방법 | 59 |
| 바. 평가 | 60 |
| 사. 2009 개정 교육과정과 음악과 교육과정 전반 | 6 |
| V. 결론 및 제언 | 62 |
| 1. 결론 | 62 |
| 2. 제언 | 64 |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설문지)

표 목차

| | |
|----------------------------------------------------------------------|-----|
| <표 - 1> 추구하는 인간상 | 7 |
| <표 - 2> 창의성의 여러 가지 정의 | 9 |
| <표 - 3> 창의적 사고와 창의적 성향 | 11 |
| <표 - 4>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 | 3·1 |
| <표 - 5> 교육과정 구성의 방침 | 41 |
| <표 - 6> 교과군의 설정 | 81 |
| <표 - 7>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총괄목표 | 32 |
| <표 - 8> 2009 개정 교육과정 적용 일정: 중학교 | 7·2 |
| <표 - 9> 2007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과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비교 - 목표 | 8·2 |
| <표 - 10> 2007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과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비교 - 내용의 영역과 기준 | 28 |
| <표 - 11> 2007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과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비교 - 교수·학습 방법 | 29 |
| <표 - 12> 2007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과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비교 - 평가 | 29 |
| <표 - 13> 조사연구 설문지 내용 영역 및 구성 체제 | 33 |
| <표 - 14> 응답자의 인적사항 | 53 |
| <표 - 15> ‘성격’항 삭제 후 목표 항에 포함시킨 것의 의미 정도 | 36 |
| <표 - 16> 학년군 제도 내에서 학교급 목표의 적절성 | 73 |
| <표 - 17> 초등학교급 목표와 중학교급 목표의 위계 | 73 |
| <표 - 18> 내용영역에 대한 목표 설정의 적절성 | 83 |
| <표 - 19> 음악교육을 위한 내용 영역의 타당성 인식 | 83 |
| <표 - 20> 내용영역에 의한 활동 중심 음악교육 활성화 기대 | 93 |
| <표 - 21> 내용영역에 대한 내용체계의 적절성 | 93 |
| <표 - 22> 전 영역에서의 [음악의 요소 및 개념] 효과적 운영 가능성 | 0·4 |
| <표 - 23> 변화해 온 교육과정 내용체계 중 선호도 | 14 |
| <표 - 24> 초등학교 5-6학년군 중 위계나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항목 | 1·4 |
| <표 - 25> 중학교 1-3학년군 중 위계나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항목 | 2·4 |

| | |
|----------------------------------------------------------|-----|
| <표 - 26> 초등학교 5-6학년군 중 위계나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항목 | 3·4 |
| <표 - 27> 중학교 1-3학년군 중 위계나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항목 | 3·4 |
| <표 - 28> 학년군별 음악요소의 위계나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항목 | 44 |
| <표 - 29> 학년군 제도 내에서 학교급별 지도 분류의 적절성 | 54 |
| <표 - 30> 내용영역에 대한 '내용영역별 지도'의 효율적 구성 | 45 |
| <표 - 31> 지위별 성취기준과 학습활동예시에 대한 활용 지침의 필요 여부 | 64 |
| <표 - 32> 연령별 성취기준과 학습활동예시에 대한 활용 지침의 필요 여부 | 64 |
| <표 - 33> 창의적인 교수·학습에 악기 사용 제한이 주는 부정적 영향 | 74 |
| <표 - 34> 이해영역의 삭제로 인한 지필평가의 의미 모호 | 74 |
| <표 - 35> 평가 방법 중 '태도'평가의 어려움 | 48 |
| <표 - 36>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 중 '창의 인재 육성' 반영 | 48 |
| <표 - 37>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 중 '음악의 생활화' 반영 | 49 |
| <표 - 38>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 중 '미래사회에서 요구하는 핵심역량' 반영 | 49 |
| <표 - 39>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교육과정 명료화'에 대한 인식 | 50 |
| <표 - 40> 음악교과 집중이수제 실시의 부적합 여부 | 05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11년 8월,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이 약 4개월의 짧은 연구기간을 거쳐 고시되었다. 이는 2009년 12월에 고시된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방향을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구체화하고자 하는 계획에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개정 연구가 단기간에 이루어짐에 따라 연구진의 노고와 고심에도 불구하고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은 음악과 교육과정의 내실화를 꾀하는 데에 한계점을 갖게 되었다. 또한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이 주요 방침으로 제시하고 있는 집중이수제, 수업시수 20% 증감 자율화, 교과군 설정 등으로 인해 단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필요로 하는 음악교과교육이 도외시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음악교과교육은 새 교육과정이 불러온 제도적 측면은 물론이고 우리 음악교과교육에 대한 고찰로 자구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에서는 추구하는 인간상으로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의 발달과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기초 능력의 바탕 위에 새로운 발상과 도전으로 창의성을 발휘하는 사람,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품격 있는 삶을 영위하는 사람, 세계와 소통하는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의 정신으로 공동체 발전에 참여하는 사람을 제시하고 있는데¹⁾, 이러한 내용은 창의·인성 교육을 강조하는 내용을 내포하고 있으며 인지적·정의적·심동적 영역을 골고루 다루는 음악교육의 다양한 학습활동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성취 가능하다. 지난 2010년 개최되었던 세계문

1) 교육과학기술부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9-41호, 2009) I-1. 추구하는 인간상

화예술교육대회에서 유네스코(UNESCO)는 학교의 음악 교육이 단순히 예능이나 정서의 교육을 넘어서 학생의 감성적·미적·사회적·인지적·창의적 능력을 조화롭게 개발할 수 있는 근간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고²⁾, 2012년 3월 인천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16개 시·도 교육감들은 2009 교육과정 개정으로 인해 음악과 미술, 체육이 집중이수 과목에 선정돼 지속적인 전인교육이 저해되고 있으므로 해당 과목의 집중 이수에서 제외하고 교원을 추가 확보해야 한다는 사항을 건의하였다. 또한 독일의 경우 독일 주정부 문교부장관 회의에서 모든 주들이 주 5일제 수업으로 인하여 주당 시수가 줄어들어도 불구하고 음악시수를 줄이지 않을 것을 동의하였다. 이 같은 현상은 독일이 전인교육 감성교육으로서 음악교육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으며³⁾, 나아가 음악교육이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을 육성하기에 효과적이라는 사실 또한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군 및 학년군제와 집중이수제의 실시로 지속적인 음악교육을 행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졌다. 짧은 기간에 편중시켜 음악을 배우면 학생들의 전인적인 성장을 어렵게 하고 집중이수제와 20% 증감편성은 소수 교과목의 수업시수를 더욱 줄여서 입시 교과목 수업시수 늘리기로 이어지며, 이는 더 이상 줄일 수도 없을 만치 수업시수가 적은 교과목을 고사시키고 향후 선택과목으로 만들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여 진다.⁴⁾ 전인적 발달은 물론 문화적 소양·창의성·인성의 발달에 반드시 필요한 음악교육이,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에 의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총체적 위기에 직면한 실정인 것이다.

-
- 2) 석문주, 최미영 「외국의 음악과 교육과정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음악과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시사」 (교육과정연구 제29권 제2호, 2011), 146쪽
 3) 민경훈 「독일 중등학교 음악교육에 관한 분석 연구」 (예술교육연구 5-1, 2007), 18쪽
 4) 신은희 「국회교육과정 토론회 발제문, 토론문」 (2009 개정 교육과정 토론회 원고, 2009)

이러한 교육과정 개정의 영향에 따라 안팎으로 대두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교육학자, 교사 등을 비롯하여 많은 이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는 가운데 현 실정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와 노력들 또한 끊이지 않고 있다. 김지혜⁵⁾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중등 음악교사의 인식’, 박정은⁶⁾은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중등 음악교사의 인식 조사 연구’, 이사야⁷⁾는 ‘2009개정 교육과정이 중등학교 음악교과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에 관한 고찰’에서 중등음악교사의 인식을 통해 새 교육과정이 음악교과에 발생시키는 영향을 중점으로 조사연구를 하여 교육과정 총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였다. 더불어 채로이아⁸⁾는 ‘2009 개정 교육과정 도입에 따른 음악교과의 영향 전망’에서 음악교육도 학교현장에서 전문성을 살리기 위한 꾸준한 노력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고 윤성원⁹⁾은 ‘공교육으로서 음악교과교육의 정체성’에서 음악교과교육의 교육적 보편성과 시사성을 고려한 음악과 교육과정의 설정이 중요함을 언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들에 이어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구체화된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자체를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봄으로써 음악과 교육과정이 지닌 문제점을 고찰해보고 음악교육과 관련된 전문가 및 전공 학생들의 의견 조사를 통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현재 음악교육이 봉착한 상황과 관련하여 제도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은 물론, 나아가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음악과 교육과정 내에 존재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단순히 비판이

5) 김지혜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중등 음악교사의 인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11)
 6) 박정은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중등 음악교사의 인식 조사 연구」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11)
 7) 이사야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중등학교 음악교과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에 관한 고찰」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12)
 8) 채로이아 「2009 개정 교육과정 도입에 따른 음악교과의 영향 전망」 (음악교육연구 제39집, 2010)
 9) 윤성원 「공교육으로서 음악교과교육의 정체성」 (음악교육공학 제10호, 2010)

아닌 음악교육내의 자성적 성찰의 측면에서 우리 음악교육을 돌아보고 더 나은 음악교육을 위한 하나의 방법을 강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가 미래의 음악교육을 설계하는데 하나의 의미 있는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내용과 방법을 갖는다.

첫째, 2009 개정 교육과정과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연구를 위한 탐구요소들을 추출한다.

둘째, 교육과정 및 음악과 교육과정에 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연구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셋째, 교육과정 분석과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추출된 탐구요소와 시사점을 토대로 음악교육 전문가와 현장 교사, 음악교육 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 문항을 개발한다.

넷째, 다양한 음악교육 관련자를 대상으로 개발된 문항을 활용하여 설문조사 한 후 그 결과를 분석한다.

다섯째, 설문 조사와 결과 분석 자료를 토대로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분석·종합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제시한다.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운영이 학교 현장에서 실행되기 이전인 현 시점에서 각 음악교육 관련자의 의견에만 의존하여 실행되었기 때문에, 실제 적용하여 운영되는 상황에서 드러나는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갖는다.

둘째, 본 연구의 설문 및 면담 대상자들은 음악교육 관련자로만 한정되었다. 수요자인 학생을 비롯해 학부모, 사회학자, 교육행정가 등 음악교육 관련자만이 아닌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의 음악과 교육과정은 선택교육과정을 제외한 공통교육과정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2009 개정 교육과정

가. 교육과정 개정 배경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광복 이래, 약 60년 동안 10여 차례 이상 개정되어 왔다. 사회와 교육관의 흐름에 따라 교육과정의 개념뿐만 아니라 중점 내용 또한 변화해온 것이다. 2009 개정 교육과정도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진단과 교육과정 개선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2007년 10월부터 2009년 2월까지 두 차례의 국가 교육과정 포럼과 교육과정 선진화 개혁 방안 연구를 거쳐 미래사회에 적합한 ‘미래형 교육과정’을 구상하기 시작하면서 개정이 진행되었다.

초·중등학교 교육은 우리나라의 법령에 근거하여 살펴보면,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교육기본법 제2조에는 우리나라의 교육 이념이 제시되어 있으며,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¹⁰⁾. 이러한 법령에 의해 규정된 교육관련 내용이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어 일반적 기준으로 세워지며 초·중등학교에서 편성·운영하여야 할 학교 교육과정의 교육 목표와 내용, 방법과 운영, 평가 등에 관한 국가 수준의 기준 및 지침을 제시하게 된다. 나아가 이러한 지침에 근거하여 국가 수준 교육과정이 개정되어 의도적인 제도교육의 목표와 내용, 방법, 평가의 기준으로 역할을 하게 되고 교육행정 및 재정, 교원의 양

10) 교육과학기술부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 총론」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9-41호에 따른, 2009), 10쪽

성·수급·연수, 교과서 등의 교재 개발, 입시제도, 교육 시설·설비 등에 대한 정책 수립과 집행의 근거가 되는 ‘교육의 기본 설계도’로서 기능하게 되며 학교 교육과정의 기준으로서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2009 개정 교육과정은, 미래지향적인 교육과정의 필요성에 따라 미래사회와 학교교육을 연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되었으며 고시 또는 공포된 순서에 따라 2007 개정 교육과정에 이어 2009 개정 교육과정이라는 명칭으로 2009년 12월 23일에 개정 고시되었다.

나. 교육과정 기본 방향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방향은 ‘하고 싶은 공부, 즐거운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핵심사항으로 하여 학생의 지나친 학습 부담을 감축, 학습 흥미를 유발, 단편적 지식·이해 교육이 아닌 학습하는 능력 신장, 지나친 암기중심 교육에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으로의 변화 추구가 가능하도록 구성하고 있다.

또한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초·중등교육의 교육 비전 중 하나로써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핵심 역량 등과 더불어 ‘추구하는 인간상’을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교육과정 총론에 수록된 내용으로 다음과 같다.

<표 - 1> 추구하는 인간상¹¹⁾

1. 추구하는 인간상

우리나라의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11) 교육과학기술부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9-41호, 2009) I-1. 추구하는 인간상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 이념을 바탕으로, 이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다음과 같다.

- 가.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의 발달과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 나. 기초 능력의 바탕 위에 새로운 발상과 도전으로 창의성을 발휘하는 사람
- 다.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품격 있는 삶을 영위하는 사람
- 라. 세계와 소통하는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의 정신으로 공동체 발전에 참여하는 사람

1)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의 발달과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인간은 신체적·정신적 등의 여러 형성요소가 조화를 이루어 전체적으로 반응하는 존재로 각 요소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게 된다. 그러므로 인간의 학습도 유기적 관련 하에 상호작용 하므로 교육은 다양하면서도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현대사회의 교육에는 공리주의, 입신출세주의, 실용적 지식기능의 강조 등이 팽배해 있어 이러한 경향에 반대하여 넓은 교양과 건전한 인격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나타난 것이 전인교육이다. 따라서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내에 제시한 ‘전인적 성장’은 인간의 신체적 성장, 지적 성장, 정서적 발달, 사회성의 발달을 조화시킴으로써 학생들의 몸과 마음 곧 지(智)·덕(德)·체(體)가 고루 발달하여 균형 잡힌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말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이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 태도와 행동을 배우고 나아가 자신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발달하게 하여 미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와 연결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기초 능력의 바탕위에 새로운 발상과 도전으로 창의성을 발휘하는 사람

‘창의성’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며 상황과 맥락에 따른 의미를 규명해야 할 필요성도 가지고 있다. 특히 창의성 교육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창의성의 개념 정의 문제이며 대상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그 개념이 포괄하는 범위가 결정되고, 그 범위가 결정되어야 교육적으로 그 대상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논의될 수 있다.¹²⁾ 다음의 표에는 다양하게 정의되어 온 ‘창의성의 여러 가지 정의’가 요약되어 나타나 있다.

< 표 - 2 > 창의성의 여러 가지 정의¹³⁾

| 학자 | 년도 | 창의성의 정의 |
|----------|------|-----------------------------------------------------------------------|
| Guilford | 1950 | 개인이 얼마나 주목할 만한 정도의 창의적인 행동을 하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창의적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
| Stein | 1953 | 특정한 집단에 의하여 지속적이거나 유용하거나 만족스럽다고 받아들여지는 새로운 작업의 결과를 나타내는 과정 |
| Rogers | 1954 | 새로움과 관련된 산출물, 개인의 독특성의 발현이자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의 삶에서 산출물, 사건, 사람들, 환경으로 나타난 것 |
| Mednic | 1962 | 관련된 요소들로부터 새로운 조합을 형성하여 특정한 요구를 만족시키거나, 유용하게 만드는 것 |
| Torranc | 1974 | 문제, 결합, 지식의 공백, 없어진 요소들, 부조화에 민감해지는 과정 |

12) 임선하 「창의성교육 : 반성적 접근」 (창조교육논총, 2007), 9:55-86쪽

13) 정지은 「국내 창의성 교육 관련 논문 분석을 통한 창의성 교육 연구의 동향 및 의미 탐색」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2), 6쪽

| | | |
|------------------------|------|----------------------------------------------------------------------------------------------------|
| 임선하 | 1993 | 새로움에 이르게 하는 개인의 사고 관련 특성,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 |
| Csikszent-mihaly | 1996 | 알고리즘적(algorithmic)이기보다는 발견적(heuristic)인 과제에 대하여 주위에서 창의적이라고(새롭거나 유용한, 적절한, 가치 있는)판단되어지는 산출물이나 응답 |
| 박병기 | 1998 | 새롭고 적절한 것을 만들거나, 생각하거나,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한 인간의 동기, 태도, 능력, 기법이 지속적으로 통합되는 과정에서의 그의 전체적인 특성 |
| Sternberg & Lubart | 1999 |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의 산출 |
| Sawyer | 2003 | 복잡하고, 예측할 수 없는 상호작용에 참여하는 사회적 그룹 내에서 발생하는 과정이며, 산출물은 개인 혼자만의 역량이 아니라, 전체적인 시스템이 함께 창조하는 것 |
| Plucker와 Beghetto, Dow | 2004 | 한 개인이나 집단이 특정한 사회적 맥락 내에서 새로우면서도 유용한 결과나 산출물을 생성해 내는 능력과 과정간의 상호작용 |
| 조연순 외 | 2008 | 개인 또는 집단의 창의적 특성(인지적, 정의적 요소 포함)이 창의적 과정을 거쳐 사회적 맥락에 의해 새롭고 유용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산출물을 생성하는 능력 |

창의성의 정의가 다양하게 정의되어 온 것과 같이 창의성은 단지 우연에 의한 독창적 사고만으로 발휘되는 것을 넘어서 각 맥락에 알맞게 구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능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또한 최근의 연구를 살펴보면 창의성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다음의 표에 나타나는 특성들을 창의적 인재가 갖추어야 할 특성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우선 기초 능력을 갖추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발상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을 기르고자 하고 있다.

< 표 - 3 > 창의적 사고와 창의적 성향¹⁴⁾

| 구분 | | |
|--------------|----------------|---------|
| 창의적 사고 능력 | 확산적 사고 | 유창성 |
| | | 융통성 |
| | | 상상력 |
| | | 독창성 |
| | 논리적, 비판적 사고 | 정교성 |
| | | 비판 및 평가 |
| | | 논리, 추론 |
| | | 분석 |
| | 종합 | |
| 창의적 성향 | 개방성 | |
| | 과제 집착력/집중력 | |
| | 호기심 | |
| | 자발성 | |
| | 자기 신뢰감 | |
| | 민감성 | |

3)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품격 있는 삶을 영위하는 사람

미래사회에서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삶의 모습은 경제적 풍요를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학생 각자가 다양한 문화에 대한 감수성을 바탕으로 풍부한 학습 경험을 통해 문화적 소양을 갖추고 향유하는 것이다.¹⁵⁾ 올바른 문화적 소

14) 교육과학기술부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 총론」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9-41호에 따른, 2009), 28쪽 중 '이종연 외(2005). 창의적 문제해결력 증진을 위한 Creative Thinker 프로그램 연구. 서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제시된 사항을 재구성한 자료 인용.

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우리문화에 대한 이해 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관용적인 태도로 교류할 수 있어야 한다.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세계의 민족 국가들이 지니고 있던 다양한 문화를 서로 인정하고 교류하기 위해 여러 문화를 존중하고 수용하고자 하면서 피어난 다문화주의 이념은 우리나라에도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가 되어가면서 미래의 교육에서는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 이해가 더욱 더 요구된다. 그러므로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방향에 따라 학생들이 우리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지니고 타문화에 대해서도 열린 자세로 다양한 학습 경험을 함으로써 품격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

4) 세계와 소통하는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의 정신으로 공동체 발전에 참여하는 사람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으로서의 학생들은 글로벌 창의 인재로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하여 의사소통 능력, 정보통신 활용능력, 삶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안목을 필요로 한다. 이것은 우리의 사회가 이미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국가 간 교류가 증대하여 개인과 사회집단이 갈수록 하나의 세계 안에서 삶을 영위해 가는 과정에 놓여있기 때문이며 즉 '세계화'되어있음을 의미한다. 사회는 지속적으로 글로벌화가 가속화될 것이고 이러한 미래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은 세계의 흐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 안에서 당당한 세계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자세를 갖추

15) 교육과학기술부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 총론」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9-41호에 따른, 2009), 28쪽

어 나가야 한다.

<표 - 4>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¹⁶⁾

| 자주인 (self-directed person) | 창의인 (creative person) | 문화인 (cultivated person) | 세계인 (global-minded person) |
|---------------------------------------|-----------------------------------------------|--------------------------------------|-------------------------------------------------|
| 지·덕·체의 고른 발달, 개성의 발휘, 진로 개척, 자기 주도성 등 | 기초능력 구비, 확산적 사고, 문제 해결능력, 독창성, 새로운 가치 창출 능력 등 | 다양한 문화적 소양,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 삶의 질 추구 등 | 의사소통능력, 세계 시민 의식, 지구 공동체에 문제 해결, 인류공영, 배려와 나눔 등 |

5) 교육과정 기본 방향 요약

2009 개정 교육과정은 미래사회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설계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교육과정의 기본방향으로 ‘추구하는 인간상’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명료하게 도표화 된 것이 위에 첨부된 표이다. 표를 살펴보면 자주인, 창의인, 문화인, 세계인의 네 가지 인간상을 추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교육을 통하여 ‘추구하는 인간상’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과정 구성방침을 주요 개정 내용에 포함하고 있다.

다. 교육과정의 주요 개정 내용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교육과정 구성의 방침’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개정을 시행하였다.

16) 교육과학기술부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 총론」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9-41호에 따른, 2009), 26쪽

<표 - 5> 교육과정 구성의 방침¹⁷⁾

- 가.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적인 인재를 기를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한다.
- 나. 이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공통 교육과정과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선택 교육과정으로 편성한다.
- 다.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학년 간 상호 연계와 협력을 통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학년군을 설정한다.
- 라. 공통 교육과정의 교과는 교육 목적상의 근접성, 학문 탐구 대상 또는 방법상의 인접성, 생활양식에서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교과군으로 재분류한다.
- 마. 선택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의 기초영역 학습 강화와 진로 및 적성 등을 감안한 적정 학습이 가능하도록 4개의 교과 영역으로 구분하고, 필수 이수단위를 제시한다.
- 바. 학기당 이수 교과목수 축소를 통한 학습부담의 적정화와 의미 있는 학습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집중이수를 확대한다.
- 사. 기존의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합하여 배려와 나눔의 실천을 위한 ‘창의적 체험활동’을 신설한다.
- 아. 학교 교육과정 평가, 교과 평가의 개선,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 등을 통해 교육과정 질 관리 체제를 강화한다.

교육과정 구성 방침에 따라 2009 개정 교육과정은 기존 교육과정의 큰 흐름은 유지하나, 보다 구체적인 교육과정 편제의 구성 방침을 제시하여 다음과 같이 주요 내용을 개정하였다.

1) 학년군, 교과군 설정

‘학년군’은 초등 · 중등 · 고등학교 12년의 교육기간을 1-2, 3-4, 5-6,

17) 교육과학기술부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9-41호, 2009) I-2. 교육과정 구성의 방침

7-9, 10-12의 학년군으로 설정하여 편성한 것을 말한다. 학년군의 설정으로 학년과 학기별 집중이수가 가능해지며 이로써 학기당 이수 과목수의 축소로 학생들의 학습 부담 감소를 꾀하고자 하였다. 또한 학년군의 설정을 통하여 교육과정 운영의 유연성을 부여하여 학년간의 연계와 협력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더불어 기존의 10개 국민공통기본교과를 중학교의 경우 8개 교과군으로 편성하여 국어, 사회(역사 포함)·도덕, 수학, 과학·기술·가정, 체육, 음악·미술, 영어, 선택교과로 구분하였다. 교과군의 설정은 교과 간 소통과 교과 편제에 있어 유연한 운영 및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탄력적인 구성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2) 집중이수제

‘집중이수제’란 수업시수가 적은 일부 과목의 이수시기를 특정 학년이나 학기에 집중이수하게 하는 방식을 말한다. 현재 중등학생들의 경우를 살펴보면 주당 11-13개의 과목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학습 효과나 학습 부담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수업시수가 적은 일부 과목을 특정 학기, 학년에 집중하여 이수하게 하는 제도를 실시하도록 한 것이다.

3)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조정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10년으로 운영해왔던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중학교 3학년까지의 9년으로 조정하였다. 이는 교육과정 자율화를 시도하는 고등학교에서도 공통기본교육과정을 시행하여 자율화에 하나의 장애로 적용되었던 요인을 해소하고 학년

군 설정에 적합한 운영을 이루며 국민기초교육을 초·중학교 과정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전 학생의 기초학력 강화를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4) 고등학교 선택교육과정 확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기간을 중학교 3학년까지로 축소하면서 고등학교에서 선택중심 교육과정 기간을 확대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화와 효율화를 기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선택교육과정의 특성을 살려 운영하게 되면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 등에 따라 적절한 학습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진행된 것이다. 또한 용어의 변화도 이루어져 ‘공통 교육과정’과 ‘선택 교육과정’으로 변경하였고 그 의미를 명료하게 하는 것은 물론 성격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 창의적 체험활동의 신설

기존의 구성은 창의적 재량활동과 교과재량활동으로 구성된 재량활동과 자치활동, 적응활동, 계발활동, 봉사활동, 행사활동으로 세분화된 특별활동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지나치게 세분화 되어있고 본래의 취지와 어긋나게 행해지는 부분이 있다는 요구사항이 있으므로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합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을 신설하였다.

창의적 체험활동의 수업 시수는 주당 초등학교 2시간, 중학교 3시간, 고등학교 4시간을 최소로 하여 운영하도록 하였고 이러한 운영을 통하여 학생들이 학교교육에서 전인적 성장이 가능한 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고 있다.

6)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확대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 운영의 기본 틀만 제시하고 단위학교가 다양화와 특성화를 위해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단위학교의 실정이나 특성에 따라 운영하기에는 제약이 있던 기존의 사항을 개선하여 학생의 학습부진이나 적성, 진로를 고려한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였다.

7) 교육과정의 주요 개정 내용 요약

교육과정 주요 개정 내용은 ‘교과군·학년군 설정’, ‘집중이수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조정’, ‘다양성·자율성 확대’로 요약하여 설명할 수 있다. 10개 국민공통기본교과를 8개 교과군으로 재설정하였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12년간의 교육기간을 1-2, 3-4, 5-6, 7-9, 10-12으로 학년군을 설정하여 편성하였는데, 이는 수업시수가 적은 일부 과목을 특정 학년 또는 학기에 집중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집중이수제를 가능하게 하여 학년 간 연계성 확보와 학습부담 감소 등을 추구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10년에서 9년으로 조정하면서 고등학교 선택교육과정의 확대가 이루어졌으며 더불어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 창의적 체험활동 신설 등 학교와 학생의 특성에 맞추어 교육을 다양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 주요 개정 내용이다.

2.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가. 음악과 교육과정 개정 필요성

1) 2009 개정 교육과정 체제에 적합한 개발 필요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은 2009년 12월에 고시된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개정 이후 2011년 2월에 이루어진 각 교과별 정책연구과제 공모 및 선정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음악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 개발 연구’가 선정되면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개발되었다. 그러므로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지닌 방향과 주요 내용에 따라 교과 교육과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개정되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년군·교과군의 설정에 따른 개발이 이루어졌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편제된 학년군 단위에 따라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3-4학년군, 초등학교 5-6학년군, 중학교 1-3학년군의 3개 학년군별로 교육과정 개발이 이루어져 그에 따른 내용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교육과정 체제에서 중학생의 경우 평균적으로 학기당 11-13개의 과목을 이수하여 학생들의 학습 부담이 과다하다는 판단 하에 설정된 교과군 제도 적용에 따라 음악교과는 음악교과 단독 편성이 아닌 미술교과와 함께 예술 교과군으로 통합되었다. 다음의 표는 기존의 교과목들이 8개의 교과군으로 통합되어 설정된 것을 간략하게 나타낸 표이다.

<표 - 6> 교과군의 설정¹⁸⁾

| | | | | | | | | | | | |
|-------------------------------|----|-------|----|----------|----|-----------|----|----|----|----|-------|
| 10개 교과 및 교과재량활동의 선택 과목 | 국어 | 도덕 | 사회 | 수학 | 과학 | 기술·가정 | 체육 | 음악 | 미술 | 영어 | 선택 과목 |
| 8개 교과(군) | 국어 | 사회/도덕 | 수학 | 과학/기술·가정 | 체육 | 예술(음악/미술) | 영어 | 선택 | | | |

18) 교육과학기술부 「음악과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시안 연구 개발」(2011년 정책연구개발사업, 2011), 2쪽

둘째, 공통 교육과정 기간 재설정을 고려한 내용 개발이 이루어졌다. 개정 교육과정부터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10년간이 아닌 중학교 3학년까지의 9년으로 조정되었다. 이에 따라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 중학교의 음악과 교육과정은 ‘공통 교육과정’으로, 고등학교 음악과 교육과정은 ‘선택 교육과정’으로 명칭하고 고등학교 2-3학년에 운영되었던 선택중심 교육과정은 고등학교 전 학년에 걸쳐 다루도록 개정되었다. 또한 개정된 편제에 적합하도록 중학교 3학년까지의 기간 동안 공통교육이 완성될 수 있도록 제반 능력을 설정하고 공통교육과 고등학교 선택교육과정의 내용이 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즉 10학년의 내용을 9학년에서 학습하도록 교과 내용의 수준을 조정하기 보다는 선택형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셋째, 고교 선택과목 재구조화를 고려한 개발이 이루어졌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교 1-3학년이 선택 교육과정 기간으로 편제되어 선택 과목을 학습하는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므로 음악과 선택교육과정의 재구조화가 필요하게 되었고, 일반계 고등학교에서의 예술 집중 과정 · 예술 중점 고등학교 · 예술계 고등학교 등 다양한 고등학교의 유형과 프로그램이 나타남에 따라 시대 · 사회적 변화의 내용을 수용할 수 있는 과목들로 재구조화하는 것 또한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러한 필요에 의해 개정된 음악과 선택 교육과정은 먼저 재구조화된 고등학교 선택과목의 학습기간을 고려하여 교과내용의 내용을 조정하고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이 연계성을 지닐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양화된 고등학교 체제에 따라 교육 과정이 보다 유연성과 개방성을 지닐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일반 과목으로 분류된 음악과 생활, 음악과 진로는 일반계 고등학생 수준에 적합하도록, 심화 과목으로 분류된 음악 이론, 음악사, 시창 · 청음, 음악 전공 실기,

합창·합주, 공연실습, 음악과 매체, 교양 실기는 음악교과를 심화하여 학습하고자 하는 학습자에게 적합하도록 구성하였다.

넷째, 교육과정 내용의 적정성 및 연계성 강화가 이루어졌다. 먼저 교육과정의 적정성 강화를 위해서 교과군 별 성취기준 수를 조정하고 교과군내 내용 영역을 통합하여 학년군·교과군 별 최소 필수 학습내용을 정선함으로써 약 20% 감축 조정을 시도하였다.

또한 교육과정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서 기존의 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이 학습해야 할 음악교과 내용의 수준을 고려하였다면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이 마무리 되는 중학교 3학년과 선택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교과 교육과정을 개정되었다.

2) 국가·사회적 요구 사항의 반영

국가 교육과정 개정 시마다 현 사회의 흐름을 읽고 미래사회를 예측하여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과정 개정시, 이렇게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새로운 교육 방향을 ‘국가·사회적 요구’라는 차원에서 다루어 왔다. 그러므로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 개정에서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국가·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였는데 그것은 창의·인성 교육, 국가 정체성 교육, 녹색 성장 교육의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음악 교과와 관련되는 사항으로는 창의·인성 교육과 국가 정체성 교육을 들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시한 내용으로 ‘음악’교과의 경우는 교과 특성에 적합하도록 교육 내용, 교육 방법 등에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요소들을 반영하고 국가 정체성 교육 강화를 위한 우리 음악의 가치 강조, 다문화적 태도와 이해를 함양을 위한 여러 나라의 동요 부르기 또는 민속음악을 듣고 느낌 토의하기

등을 예로서 제시하고 있다.

3) 2007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 대한 개선 요구 사항 반영

지난 2010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 개선 방안 연구’로 면담 및 설문조사, 문헌연구, 워크숍 개최, 전문가 협의회가 진행되었고 이 연구를 바탕으로 2007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이 지닌 문제점과 개선 요구 사항을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 반영하게 되었다. 종합한 내용을 교육과정 문서 구성 체계에 따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2007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은 ‘성격’항에서 음악의 정의와 역할, 음악교과의 특성, 음악지도의 중점, 음악교과의 목적을 제시했던 반면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는 ‘성격’항의 삭제가 이루어지는 대신 성격적 측면을 ‘목표’항에 포함하여 제시하였다. 기존의 교육과정 역할 부분에서 음악의 역할과 음악교과의 역할로 중복되었기 때문에 내용의 분별이 어려우며 굳이 나누어 제시할 필요는 없다는 요구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사회에서 더욱 강조되고 있는 ‘창의성 · 인성 계발 교육’과 연결되는 음악의 다양한 역할과 가치에 대한 언급도 강화하였다. 창의성을 비롯한 음악교과의 역할과 가치를 부각시키지 못했던 ‘성격’부분을 창의성 교육과 관련하여 음악 교과의 본질과 역할을 강화해 제시할 필요에 따른 것이다.

총괄목표와 학교급별 목표로 진술된 ‘목표’항은 그 내용이 음악과의 성격, 교수 · 학습 방법, 평가와의 연계성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총괄목표와 학교급별 목표 간의 위계를 분명히 하는 것을 중점으로 요구사항을 반영하였다.

내용은 내용 항을 구성하는 하위 항목의 적절성을 쟁점으로 하여 학년군

별 성취기준을 제시하여 포괄적인 내용을 제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교수·학습 방법은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교수·학습 방법 항에 하위 항목으로서 ‘가. 교수·학습계획’, ‘나. 교수·학습 방법’, ‘다. 학교급별·내용영역별 지도’, ‘라. 교수·학습 시설 및 기자재’로 구성되었는데 이중 ‘나’항이 상위 분류와 같은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 수정이 필요했던 것을 개선하였다.

‘평가’의 경우도 명칭과 진술 내용의 불일치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을 중점으로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4) 음악과 교육과정 개정 필요성 요약

위와 같이,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개정 필요성은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으며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개정 내용에 적합하도록 음악과 교육과정도 개정이 필요함에 근거한 것이다. 집중이수제 및 학년군·교과군설정에 따라 교육과정 내용을 새롭게 구분하여 제시하고,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조정으로 1-9학년까지의 음악과 공통교육과정 내용을 구성하는 한편 확대된 선택교육과정은 과목과 학습내용을 재구조화 할 필요성을 지녔다.

두 번째, 국가·사회적 요구 사항에 의해 미래사회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의 방향이 설정되었고 음악과 교육과정도 이것을 교육과정에 반영해야 할 필요성을 갖게 됨에 따라 음악교과의 특성에 비추어 창의·인성, 국가 정체성 교육을 위한 요소를 반영하게 되었다.

세 번째, 2007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 각종 사전연구에서 나타난 2007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 대한 개선 요구 사항을 반영

하여 음악과 교육과정의 개정 필요성을 더한 것이다.

나. 음악과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

1) 창의 인재 육성 강조

현 국가·사회적 요구사항으로 창의·인성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도 음악과 교육과정의 총괄 목표에 창의 인재 육성을 직접적으로 명시하면서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 7>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총괄목표¹⁹⁾

‘음악’은 다양한 음악 활동을 통하여 음악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음악성과 창의성, 음악의 역할과 가치에 대한 안목을 키움으로써 음악을 삶 속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교과이다. 음악 교과는 음악적 정서와 표현력을 계발하고, 문화의 다원적 가치를 인식하여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창의적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우리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세계 시민으로서 문화적 소양을 지닌 전인적 인간이 되는데 기여한다.

또한 구성내용도 학습자의 창의적인 사고와 다양성을 최대한 인정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제시하였다.

2) 음악의 생활화 강조

19) 교육과학기술부 「음악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1-361호 별책12, 2011), 2쪽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생활화’영역은 2007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부터 독립된 영역으로 편성·운영되기 시작하면서 그 중요성이 점차 크게 인식되었다. 그러므로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는 생활화 영역의 양과 내용 구체화를 조정하여 생활화 영역이 전체 내용영역과 비교했을 때 동등하게 독립된 영역으로 다뤄질 수 있도록 하였다.

3) 미래 사회에서 요구하는 핵심 역량의 반영

음악과 교육과정에 반영된 미래사회에서 요구하는 핵심 역량은 창의성,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정보처리능력, 대인관계능력, 자기관리능력, 기초학습능력, 인성, 시민의식, 국제사회문화이해, 진로개발능력 등이라고 할 수 있다.²⁰⁾ 특히 선택교육과정에서 진로개발능력과 평생학습능력, 창의력, 대인관계능력, 국제사회문화이해 등의 핵심역량이 음악교과를 통해 발휘 가능하도록 구성하여 학습자의 소질에 맞는 교육과 진로와 연결 가능한 교육 등을 통해 미래사회에서 요구하는 핵심역량 신장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4) 학년군 설정에 따른 교육과정 명료화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세부적인 내용 영역이 아닌 학년군의 체계를 중심으로 성취 기준을 개발하였다. 학년군을 마쳤을 때 학습자들이 도달하여야 할 수준을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교사가 수업을 구성함에 있어 공통의 기준을 제공하여 교육과정의 내용이 보다 명료하게 드러나도록 하였다.

20) 박순경 외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 개선 방향 탐색」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CRC 2010-23, 2010)

다. 음악과 교육과정 주요 내용

1) 목표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는 2007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성격’항과 ‘목표’항을 통합하여 제시되었다. 이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시한 문서 체제 개선 방향에 따른 것이며 ‘성격’에 해당하는 내용을 ‘목표’에 포함하여 함께 진술하고 있다.

이 중 ‘성격’은 음악교과의 역할에 대해 명료하게 나타내고 있고 ‘목표’는 총괄목표와 학교급별 목표로 분류한 후 학교급별 목표는 다시 내용 영역의 구분에 따라 표현, 감상, 생활화 영역과 연계된 목표를 기술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총괄 목표는 초·중학교 음악 수업을 통해 최종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학생의 음악적 성과를 제시한 것으로,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음악교육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학교급별 목표는 총괄목표에 이르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로, 학교급별로 학생의 지적, 신체적, 정서적 특징과 요구 등을 고려하여 중점 사항을 달리 하는 방향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음악의 아름다움에 대한 경험, 음악 표현과 이해, 음악의 가치 인식과 태도에 대해 제시하였으며, 내용 영역 및 성취 기준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수업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내용의 영역과 기준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내용의 영역과 기준’의 가장 주목할 점은 이해 영역을 대영역으로 다루지 않고 표현, 감상, 생활화로 내용의 영역을 선정하

고 이해를 모든 영역 전반에서 다룰 수 있도록 조정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해에 대한 학습의 위계가 모호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음악 요소 및 개념 체계표]를 제시하여 학년군별 필수 학습 내용을 규정하였다.

내용의 영역이 표현, 감상, 생활화로 나눈 것은 음악교육이 전체적으로 활동 중심의 음악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며 생활화 영역이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비해 더욱 독립된 영역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강화하였다.

3) 교수·학습 방법

‘교수·학습방법’항은 2007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내용과 비교하여 크게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으나, ‘교수·학습방법’하위 항목의 명칭을 내용에 적합하게 수정하였고 ‘학교급별 지도’는 공통 교육과정 기간 조정에 따라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내용만 제시하였으며 ‘내용 영역별 지도’는 표현, 감상, 생활화의 세 영역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부록으로 제시한 학습활동 예시를 활용하여 교사가 자유롭게 선별 또는 통합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필수 활동이 아닌 예시의 성격을 갖는다.

4) 평가

‘평가’항은 2007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내용과 비교해 볼 때 큰 변화가 보이지는 않는다. 대부분 2007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반면 ‘평가 계획’은 ‘평가 방향’으로 변경하고, ‘내용 영역별 평가’는 ‘평가 방법’에 포함시켜 하위항목의 제목을 수정하여 제시한 것이

변화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라. 음악과 교육과정 적용 시점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은 입학 연도 기준 적용 일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행될 예정이다. 2012년 현재,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은 아직 적용되지 않았고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은 적용된 상태이다.

<표 - 8> 2009 개정 교육과정 적용 일정: 중학교

| 연도 | 총론 | 예술 (음악/미술) |
|------|--------------|--------------|
| 2009 | 제7차 교육과정 | 제7차 교육과정 |
| 2010 | 2007 개정 교육과정 | 2007 개정 교육과정 |
| 2011 | 2009 개정 교육과정 | 2007 개정 교육과정 |
| 2012 | 2009 개정 교육과정 | 2007 개정 교육과정 |
| 2013 | 2009 개정 교육과정 | 2009 개정 교육과정 |

마. 2007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과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비교

1) 목표

목표에 대한 비교표를 살펴보면, 문서 체제 개선 방향에 따라 존재했던 기존의 ‘성격’ 향이 삭제된 것과 ‘목표’의 구성이 보다 명료화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목표를 총괄목표와 학교급별 목표로 구분하여 제시한 것은 두 교육과정이 동일한 형태를 취하여 구성하고 있으며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학교급별 목표는 내용영역과 관련하여 목표를 설정하였다.

<표 - 9> 2007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과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비교 - 목표²¹⁾

| 2007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 비고 |
|---------------------------------------------------------------------------------------------------------------------------------|------------------------------------------------------------------------|---------------------------------------|
| 1. 성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의 역할 • 음악교과의 역할 • 음악지도의 중점 • 음악교과의 목적 | • 음악교과의 역할 | • 음악교과의 특성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간략하고 명료하게 기술 |
| 2.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괄 목표 • 학교급별 목표 | • 총괄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급별 목표 | • 학교급별 목표는 표현, 감상, 생활화 영역과 관련된 목표로 기술 |

2) 내용의 영역과 기준

‘내용영역’의 구성은 2007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활동, 이해, 생활화의 3개 영역으로 구분하였던 것이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표현, 감상, 생활화의 3개 영역으로 변화되었다. 더불어 새롭게 구분된 내용영역에 따라 ‘학년군별 성취기준’과 ‘학습활동 예시’를 제시한 것이 특징적이다.

<표 - 10> 2007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과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비교 - 내용의 영역과 기준

| 2007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 비고 |
|----------------------------------------------------------------------------------------------------------------------------|----------------------------------------------------------------------------------------------------------------------------|----------------------------------------------------------------------|
| 가. 내용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년군별(3-4학년, 5-6학년, 7-9학년)로 제시 - 활동, 이해, 생활화의 3개 영역 | 가. 내용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년군별(3-4학년, 5-6학년, 7-9학년)로 제시 - 표현, 감상, 생활화의 3개 영역 | • 이해 영역의 음악 활동과의 통합적 지도를 강조하기 위해 대영역에서 삭제 |
| 나. 학년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년별로 제시 | 나. 성취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년군별 내용 체계에 따라 1-3개씩 제시 | • 성취기준은 지역, 학교, 학생의 특성에 따라 융통성 있는 성취기준에도 달하도록 하기 위해 활동할 수 있는 사례들을 제시 |
| 다. 영역별 학습활동 예시 | 다. 영역별 학습활동 예시 | |

21) 교육과학기술부 「음악과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시안 연구 개발」(2011년 정책연구개발사업, 2011), 부록을 바탕으로 하여 공청회 이후 변경된 부분 수정하여 제시.

3) 교수 · 학습 방법

<표 - 11> 2007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과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비교 - 교수 · 학습 방법

| 2007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 비고 |
|------------------------------------------------------------------------------------|----------------------------------------------------------------------|--------------------------|
| 가. 교수 · 학습 계획 나. 교수 · 학습 방법 다. 학교급별 · 내용영역 별 지도 라. 교수 · 학습 시설 및 기자재 | 가. 교수 · 학습 방향 나. 학교급별 지도 다. 내용영역별 지도 라. 교수 · 학습 시설 및 기자재 | •내용에 맞게 하위 항목 의 제목 조정 |

4) 평가

< 표 - 12 > 2007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과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비교 - 평가

| 2007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 비고 |
|-----------------------------------------------------|-------------------------------------|--------------------------|
| 가. 평가 계획 나. 평가 방법 다. 내용 영역별 평가 라. 평가 결과 활용 | 가. 평가 방향 나. 평가 방법 다. 평가 결과 활용 | •내용에 맞게 하위 항목 의 제목 조정 |

3. 선행연구 분석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대실²²⁾은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에서 음악과 교육과정의 내용 분석을 토대로 음악교사와 학생들에게 조사연구를 실시함으로써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이 지닌 문제점을 고찰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보다 질 높은 음악교육을 위하여 교육재원의 확보를 요구하였으며 같은 맥락에서 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일 것과 수준별 교육과정의 확대 등을 제안하였다.

민경훈²³⁾은 음악교육의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짧은 준비기간을 비롯한 개정 과정의 문제점, 입시 중심의 교육, 집중이수제 등을 비판하였다. 특히 짧은 기간에 몰아서 음악을 교육하는 집중이수제에 대해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따른 전인적 성장은 물론 음악교육의 특성을 무시한 제도임을 강조하여 비판하였다.

채로이아²⁴⁾는 2009 개정 교육과정 도입에 따른 음악교과의 영향 전망을 주제로 연구하였다. 연구에서 전인적인 성장을 위하여 중요한 음악교과가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영향으로 입시위주 교육에 의해 함몰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우려를 표하면서 음악교사도 전문성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윤성원²⁵⁾은 음악교과가 예술교과의 한 영역으로 편입되는 2009 개정 교육과정 적용을 앞두고 음악교과교육의 정체성에 대한 자성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하며 음악교과의 교육적 보편성과 시사성을 고려한 음악과 교육과정의 설정과

22) 이대실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대구지역의 중학교를 중심으로」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3)

23) 민경훈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문제점 및 음악교육의 위기」 (음악교육연구 제37집, 2009)

24) 채로이아 「2009 개정 교육과정 도입에 따른 음악교과의 영향 전망」 (음악교육연구 제39집, 2010)

25) 윤성원 「공교육으로서 음악교과교육의 정체성」 (음악교육공학 제10호, 2010)

교원양성기관의 교과교육학의 비중 확대, 음악교사 자격기준에 적합한 음악교사 확보를 요구하였다.

석문주, 최미영²⁶⁾은 4개국의 음악과 교육과정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방향에 따라 음악과 교육과정에 필요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내용으로, 총론에서 강조하는 ‘글로벌창의인재’ 양성을 위해 음악과에서 창의성 교육을 더 강화할 것, 음악과 내용을 활동영역 중심으로 하여 최소 필수 학습내용과 학습요소를 제시하고 내용·성취기준 방식으로 제시할 것, 고등학교 음악선택 과목을 재정비 할 것,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실질적인 평가내용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김지혜²⁷⁾는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음악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그들은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설문을 통해 도출해 낸 결과로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개정 시기와 연구 기간이 적절하게 설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하였고 새 교육과정이 부정적인 영향을 불러올 것이라 예측하였는데 그 중 교과군 설정에 의해 학습 부담이 감소되지는 않을 것이라 전망하였으며, 음악교과 집중이수제 실시와 교육과정 자율화로 인해 입시교육이 과열화 될 것이라 우려를 표했다. 더불어 연구된 결과를 기초로 하여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교육의 필요성과 적절한 각론·교과서의 개발, 음악교과에 대한 배려와 지원 등을 제언하였다.

박정은²⁸⁾도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중등 음악교사의 인식을 연구하였는데 대구·경북지역의 중등 음악교사들을 대상으로 하여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내용인 집중이수, 학년군 및 교과군, 예술중점학교, 학교 교육과정의

26) 석문주, 최미영 「외국의 음악과 교육과정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음악과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시사」 (교육과정연구 제29권 제2호, 2011), 146쪽

27) 김지혜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중등 음악교사의 인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11)

28) 박정은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중등 음악교사의 인식 조사 연구」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11)

자율권 부분을 효과적 측면과 한계적 측면으로 나누어 설문하고 결과에 따른 제언을 하였다.

이사야²⁹⁾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중등학교 음악교과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에 관한 고찰을 문헌연구와 현직 음악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하였고 집중이수제가 음악교과에 미치는 영향을 주요 쟁점으로 다루었다.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은 2011년부터 적용되었고,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은 적용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므로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 대한 선행연구는 아직 찾아보기 어렵다. 그래서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나 이것에서 음악교과로 파생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총론에 근거하여 개정된 ‘음악과 교육과정’을 고찰하고 인식조사를 시행하여 더 나은 음악교육을 위한 자성적 연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29) 이사야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중등학교 음악교과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에 관한 고찰」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12)

Ⅲ.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내용에 대한 의견 조사 분석

1. 조사 방법 및 절차

가. 조사 대상 선정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는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다 발전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서울, 경기, 충청 지역의 음악 교육 전공생과 중학교·고등학교 음악교사, 음악교육과 교수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나. 조사 도구 개발

본 연구는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공청회에서 토론을 거쳐 논의된 내용과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분석을 통해 설문 조사가 요구되는 사항들을 추출해 내었고 이를 토대로 문항을 작성하였다. 문항초안이 개발된 이후에는 몇 차례의 문항 수정·보완 후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설문 내용 및 구성 체계는 다음 표와 같다.

<표 - 13> 조사연구 설문지 내용 영역 및 구성 체계

| 설문 영역 | 중영역 | 세부내용 | 문항수 |
|-------------|-------------|----------------------------------------------------|-----|
| 응답자 기초사항 | 교사·교수 | ▪ 성별, 연령, 지역, 지위, 경력,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 또는 연수 경험 | 6 |
| | 음악교육 전공생 | ▪ 성별, 연령, 지역, 지위,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 또는 연수 경험 | |

| | | | |
|---------------------------------|----------------------|-------------------------------------------------------------------------------------------------------------------------------------------------------------------------------------|--------|
|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 목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서 구성 체계 변화 중 ‘성격’항의 삭제 ▪ 학년군 제도와 학교급 목표 설정의 적절성 ▪ 학교급 목표 간의 위계 ▪ 내용체계에 따른 목표 설정 여부 | 4 |
| | 내용체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영역 구분의 타당성 ▪ 내용영역 구분의 효과 ▪ 내용영역에 대한 내용체계의 구성 ▪ 음악교육을 위해 적합한 내용체계 | 5 |
| | 성취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현영역 5-6학년군, 중학교 1-3학년군의 계열성과 내용구성 ▪ 감상영역 5-6학년군, 중학교 1-3학년군의 계열성과 내용구성 ▪ 생활화영역 5-6학년군, 중학교 1-3학년군의 계열성과 내용구성 | 4 |
| | 음악 요소 및 개념 체계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교 3-4, 5-6학년군, 중학교 1-3학년군의 계열성과 내용구성 | 1 |
| | 교수·학습 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년군 제도와 학교급 목표 설정의 적절성 ▪ 내용체계에 따른 내용영역별 지도 ▪ 새롭게 포함된 내용에 대한 지침 요구 ▪ 교수·학습 방법의 내용 | 4 |
| | 평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영역의 삭제와 지필평가 ▪ 태도에 대한 평가 | 2 |
| 2009 개정 교육과정과 음악과 교육과정 | 전반적인 구성과 적합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기본 방향과 개정 내용의 적합성 ▪ 집중이수제와 음악교과 | 5 |
| 계 | | | 31(30) |

다. 조사 실시

본 조사는 설문 대상을 음악교육 전공생, 중·고등학교 음악교사, 음악교육과 교수로 선정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실시되었다.

먼저, 음악교육전공생은 서울 소재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생과 충청도 소재 사범대학 음악교육전공생을 대상으로 하였고 총 66명에게 설문지를 직접 배부하여 이 중 회수된 64부를 조사에 활용하였다.

또한 중·고등학교 음악교사 및 음악교육과 교수는 서울, 경기 소재 108개교의 204명을 대상으로 하여 2012년 4월 16일부터 5월 10일까지 우편으로 실시하였고 회수된 38부 중 무응답 설문지 1부를 제외한 37부를 조사에 활용하였다.

즉, 조사연구를 위하여 총 27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는 102부로 37.8%의 회수율을 보였다. 이 중 무응답 설문지 1부를 제외한 나머지 101부에 대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 표 - 14 > 응답자의 인적사항

| 영역 | 구분 | 빈도 | 백분율 |
|---------------------------------|---------|----|-------|
| 성별 | 남 | 9 | 8.9% |
| | 여 | 92 | 91.1% |
| 연령 | 20대 | 62 | 61.4% |
| | 30대 | 16 | 15.8% |
| | 40대 | 10 | 9.9% |
| | 50대 이상 | 13 | 12.9% |
| 지역 | 서울 | 26 | 25.7% |
| | 경기 | 32 | 31.7% |
| | 기타 | 43 | 42.6% |
| 지위 | 음악교육전공생 | 64 | 63.4% |
| | 중학교 교사 | 30 | 29.7% |
| | 고등학교 교사 | 5 | 5% |
| | 교수 | 2 | 2% |
| 경력 (음악교육 전공생 제외) | 5년 이하 | 11 | 29.7% |
| | 6-10년 | 5 | 13.5% |
| | 11-20년 | 8 | 21.6% |
| | 21년 이상 | 13 | 35.1% |
|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 수혜 여부 | 있다 | 65 | 64.4% |
| | 없다 | 36 | 35.6% |

라. 분석 방법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을 분석하기 위한 설문지는 통계처리 프로그램 SPSS³⁰⁾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17.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2. 설문조사 결과 분석

가.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목표’에 대한 인식

설문의 첫 번째 문항은,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문서구성체계의 변화 중 ‘성격’항을 삭제한 대신 관련 내용을 목표 항목에 포함시켜 제시한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인식조사였다. 설문 결과 56.5%가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과반수이상의 응답자들이 ‘성격’항을 삭제하고 관련 내용을 목표 항에서 제시한 것이 의미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표 - 15> ‘성격’항 삭제 후 목표 항에 포함시킨 것의 의미 정도

| 구분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지 않다. | 전체 |
|-----|--------|-------|-------|--------|------------|--------|
| 빈도수 | 5 | 52 | 27 | 16 | 1 | 101 |
| % | 5.0% | 51.5% | 26.7% | 15.8% | 1.0% | 100.0% |

30)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 1968년부터 미 시카고 대학교 정치학 Norman Nie에 의해 개발되기 시작한 데이터 관리 및 통계분석 소프트웨어로 원하는 통계 결과를 비교적 신속하고 용이하게 얻을 수 있으며 일반 데이터베이스에서 작성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어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어서, 총론의 학년군 설정에 비추어 볼 때 음악과 교육과정의 목표가 학교급 목표로 분류된 것은 적절한가에 대한 질문에서 응답률이 가장 높았던 응답은 ‘보통이다’로 응답자의 36.6%가 응답하였다. 또한 30.7%는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긍정적인 의견의 응답률이 높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표 - 16> 학년군 제도 내에서 학교급 목표의 적절성

| 구분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지 않다. | 전체 |
|-----|--------|-------|-------|--------|------------|--------|
| 빈도수 | 2 | 31 | 37 | 30 | 1 | 101 |
| % | 2.0% | 30.7% | 36.6% | 29.7% | 1.0% | 100.0% |

목표항의 초등학교급 목표와 중학교급 목표가 뚜렷한 위계를 나타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27.7%가 ‘보통이다’, 49.5%가 ‘그렇지 않다’, 6.9%가 ‘매우 그렇지 않다’로 응답을 보였다. 즉, 응답자인 음악교육 전공자와 음악교사, 음악교육과 교수의 27.7%는 본 문항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으며 이어 과반수 이상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임으로써 많은 응답자들이 초등학교급 목표와 중학교급 목표 간의 위계가 모호하게 설정되어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 17> 초등학교급 목표와 중학교급 목표의 위계

| 구분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지 않다. | 전체 |
|-----|--------|-------|-------|--------|------------|-------|
| 빈도수 | 0 | 16 | 28 | 50 | 7 | 101 |
| % | 0% | 15.8% | 27.7% | 49.5% | 6.9% | 99.9% |

학교급별 목표의 내용이 표현, 감상, 생활화의 내용영역 구분에 따라 적절하

게 설정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49.5%가 ‘매우 그렇다’,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고 18.8%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의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었다. 세 영역 구분에 비추어 볼 때 목표 설정이 적절한가에 대한 응답은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 18> 내용영역에 대한 목표 설정의 적절성

| 구분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지 않다. | 전체 |
|-----|--------|-------|-------|--------|------------|--------|
| 빈도수 | 3 | 47 | 32 | 18 | 1 | 101 |
| % | 3.0% | 46.5% | 31.7% | 17.8% | 1.0% | 100.0% |

나.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내용체계’에 대한 인식

음악과 교육과정의 내용영역을 표현, 감상, 생활화로 구분한 것은 음악교육을 위해 타당한가를 묻는 질문에서 55.4%가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였고 9.9%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여 새로 설정된 음악과 교육과정의 내용영역 구분에 대하여 부정적 인식보다는 대부분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 19> 음악교육을 위한 내용 영역의 타당성 인식

| 구분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지 않다. | 전체 |
|-----|--------|-------|-------|--------|------------|--------|
| 빈도수 | 7 | 49 | 35 | 10 | 0 | 101 |
| % | 6.9% | 48.5% | 34.7% | 9.9% | 0% | 100.0% |

이어서 내용영역의 표현, 감상, 생활화의 설정과 관련하여 이러한 영역의 구분으로 활동중심의 음악교육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로 44.5%가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고 ‘보통이다’는 38.6%,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는 16.8%의 응답을 보였다. 응답률을 비롯하여 제시된 의견을 미루어 볼 때 응답자들은 표현, 감상, 생활화의 영역구분으로 인해 활동중심의 음악교육이 활성화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거나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이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므로 아직은 판단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 20> 내용영역에 의한 활동 중심 음악교육 활성화 기대

| 구분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지 않다. | 전체 |
|-----|--------|-------|-------|--------|------------|-------|
| 빈도수 | 6 | 39 | 39 | 16 | 1 | 101 |
| % | 5.9% | 38.6% | 38.6% | 15.8% | 1.0% | 99.9% |

또한 표현, 감상, 생활화의 각 내용 영역의 하위 체계인 내용체계가 내용영역과 관련하여 체계적으로 구성되어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40.6%가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였고 26.7%가 부정적인 응답을 보였다. 즉, 내용영역에 대해 내용체계가 적절하다는 긍정적 인식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표 - 21> 내용영역에 대한 내용체계의 적절성

| 구분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지 않다. | 전체 |
|-----|--------|-------|-------|--------|------------|--------|
| 빈도수 | 2 | 31 | 41 | 26 | 1 | 101 |
| % | 2.0% | 30.7% | 40.6% | 25.7% | 1.0% | 100.0% |

이해 영역이 삭제된 대신 제시된 [음악의 요소 및 개념]의 이해가 표현, 감상, 생활화 전 영역에서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보통이다’가 46.5%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의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내는 응답이 30.7%로 나타났다. 이는 응답자들의 대부분이 이해영역의 삭제로 전 영역에 걸쳐 이루어지는 [음악의 요소 및 개념] 이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 인식하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관련된 의견 제시 부분에서도 그러한 인식을 찾아 볼 수 있었다.

<표 - 22> 전 영역에서의 [음악의 요소 및 개념] 효과적 운영 가능성

| 구분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지 않다. | 전체 |
|-----|--------|-------|-------|--------|------------|--------|
| 빈도수 | 3 | 20 | 47 | 29 | 2 | 101 |
| % | 3.0% | 19.8% | 46.5% | 28.7% | 2.0% | 100.0% |

이어서, 교육과정 마다 변화해 온 내용체계 중 음악교육을 위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체계는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하였는데 2007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활동, 이해, 생활화와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표현, 감상, 생활화가 44.6%로 동일한 비율의 응답을 보였다. 이와 관련하여 제시된 의견을 분석해보면 본 문항 응답에 있어 중요한 사항으로 적용한 것은 이해영역의 존재여부와 감상영역의 독립편성여부가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 졌다.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두 교육과정에 뒤를 이어서는 제6차 음악과 교육과정의 이해, 표현, 감상이 5.9%로 응답률을,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의 이해, 활동이 5.0%의 응답률을 보였다.

<표 - 23> 변화해 온 교육과정 내용체계 중 선호도

| 구분 | 제6차 -이해 -표현 -감상 | 제7차 -이해 -활동 | 2007개정 -활동 -이해 -생활화 | 2009개정 -표현 -감상 -생활화 | 전체 |
|-----|--------------------------|-------------------|------------------------------|------------------------------|--------|
| 빈도수 | 6 | 5 | 45 | 45 | 101 |
| % | 5.9% | 5.0% | 44.6% | 44.6% | 100.1% |

다.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1) 표현영역

초등학교 5-6학년 표현영역 성취기준 중 위계나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항목을 선택하도록 한 문항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1-2-(2): 악곡에 어울리는 신체표현을 할 수 있다’가 16의 빈도수로 가장 높은 응답을 나타냈다. 이어서 ‘1-2-(1): 5-6 학년 수준의 음악 요소 및 개념을 이해하며 노래 부르거나 악기로 연주할 수 있다’와 ‘1-3-(1): 상황이나 이야기를 음악으로 표현할 수 있다’가 두 번째로 높은 응답을 나타내 적절하지 않은 항목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표 - 24> 초등학교 5-6학년군 중 위계나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항목

| 구분 | 표현 | | | | | | | | |
|-----|----------------------------|-----------------------------|-------------------------------------------------------|---------------------------|---------------------------------------------------|----------------------------------------|-------------------------------|-------------------------------------------|------------------------------|
| | 1-1. 바른 자세로 표현하기 | | 1-2. 악곡의 특징을 살려 표현하기 | | | | 1-3. 창의적으로 음악 만들어 표현하기 | | |
| | (1)바른 자세와 호흡으로 노래 부를 수 있다. | (2)바른 자세와 주법을 악기를 연주할 수 있다. | (1) 5-6 학년 수준의 음악 요소 및 개념을 이해하며 노래 부르거나 악기로 연주할 수 있다. | (2)악곡에 어울리는 신체표현을 할 수 있다. | (3)악곡의 특징을 살려 혼자 또는 여럿이 외워서 노래 부르거나 악기로 연주할 수 있다. | (4)동요나 민요, 시조의 초창을 듣고 부르거나 보고 부를 수 있다. | (1) 상황이거나 이야기를 음악으로 표현할 수 있다. | (2)제재곡의 노랫말을 바꾸거나 노랫말에 맞는 말 붙임새로 만들 수 있다. | (3)제재곡의 일부 가락을 바꾸어 표현할 수 있다. |
| 빈도수 | 4 | 4 | 12 | 16 | 10 | 14 | 12 | 1 | 5 |

중학교 1-3학년도 동일한 질문으로 표현영역 성취기준 중 위계나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 질문한 결과 ‘1-2-(2): 악곡에 어울리는 신체 표현을 할 수 있다’가 빈도수 23으로, 또한 ‘1-3-(1): 다양한 예술에 어울리는 배경음악을 만들 수 있다’가 빈도수 22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다.

<표 - 25> 중학교 1-3학년군 중 위계나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항목

| 구분 | 표현 | | | | | | | | |
|-----|-------------------------------------|----------------------------------|------------------------------------------------------|--------------------------------|------------------------------------------|----------------------------------------------------|---------------------------------|-----------------------------------------|---------------------------------|
| | 1-1. 바른 자세로 표현하기 | | 1-2. 악곡의 특징을 살려 표현하기 | | | | 1-3. 창의적으로 음악 만들어 표현하기 | | |
| | (1)바른 자세와 호흡 및 정확한 발음으로 노래 부를 수 있다. | (2)바른 자세와 정확한 주법으로 악기를 연주할 수 있다. | (1) 7-9학년 수준의 음악 요소 및 개념을 이해하며 노래 부르거나 악기로 연주할 수 있다. | (2)악곡의 종류에 어울리는 신체 표현을 할 수 있다. | (3)악곡의 특징을 살려 개성있게 노래 부르거나 악기로 연주할 수 있다. | (4)예술가곡, 민요, 판소리 한 대목, 가곡의 초창을 듣고 부르거나 보고 부를 수 있다. | (1) 다양한 예술에 어울리는 배경음악을 만들 수 있다. | (2) 주제에 맞는 노랫말과 극본을 만들어 음악극으로 표현할 수 있다. | (3) 주어진 조건에 따라 간단한 가락을 만들 수 있다. |
| 빈도수 | 5 | 11 | 13 | 23 | 6 | 14 | 22 | 16 | 5 |

2) 감상, 3) 생활화 영역

이어서 초등학교 5-6학년군 감상, 생활화 영역 성취기준도 위계나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부분을 선택하여 응답하도록 하였고 그 결과 감상영역에서는 ‘2-1-(1): 5-6학년 수준의 음악 요소 및 개념에 대해 구별 할 수 있다’ 경우 16의 빈도수를, 생활화영역에서는 ‘3-1-(1): 생활 속에서 음악을 활용하며 즐길 수 있다’가 13의 빈도수를 보여 각 영역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표 - 26> 초등학교 5-6학년군 중 위계나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항목

| 구분 | 감상 | | 생활화 | | |
|-----|----------------------------------------|-------------------------------------------|----------------------------------------------|------------------------------|------------------------------|
| | 2-1. 음악의 요소 및 개념 이해하기 | 2-2. 악곡의 특징을 이해하며 감상하기 | | 3-1. 음악을 즐기는 태도 갖기 | 3-2. 우리음악의 가치 인식하기 |
| | (1) 5-6학년 수준의 음악 요소 및 개념에 대해 구별할 수 있다. | (1) 다양한 문화권의 음악을 듣고 음악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 (2) 의식음악, 축제음악, 풍류음악 등을 듣고 쓰임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 (1) 생활 속에서 음악을 활용하며 즐길 수 있다. | (1) 생활 속에서 음악을 활용하며 즐길 수 있다. |
| 빈도수 | 16 | 11 | 7 | 13 | 6 |

또한 중학교 1-3학년군 감상, 생활화 영역 성취기준에서도 위계나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부분을 선택 응답하도록 하였고 그 결과 감상영역 '2-1-(1): 7-9학년 수준의 음악 요소 및 개념에 대해 구별할 수 있다'와 생활화 영역 '3-2-(1): 세계 속에서 우리 음악의 위상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는 선택된 항목들이 감상과 생활화 영역에서 위계나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성취기준임을 의미한다.

<표 - 27> 중학교 1-3학년군 중 위계나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항목

| 구분 | 감상 | | 생활화 | | |
|-----|----------------------------------------|------------------------------------------|---------------------------------------------|--------------------------------------|-------------------------------------|
| | 2-1. 음악의 요소 및 개념 이해하기 | 2-2. 악곡의 특징을 이해하며 감상하기 | | 3-1. 음악을 즐기는 태도 갖기 | 3-2. 우리음악의 가치 인식하기 |
| | (1) 7-9학년 수준의 음악 요소 및 개념에 대해 구별할 수 있다. | (1) 다양한 시대의 음악을 듣고 음악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 (2) 음악을 듣고 현대사회에서 음악의 다양한 쓰임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 (1) 생활 속에서 음악을 활용하며 문화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 (1) 세계 속에서 우리 음악의 위상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
| 빈도수 | 14 | 12 | 4 | 10 | 15 |

라.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음악 요소 및 개념 체계표]

학년군별로 구성된 [음악 요소 및 개념 체계표]의 리듬, 가락, 화성, 형식, 셈여림, 빠르기, 음색 분류 중 위계나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항목을 묻는 질문에서 가락요소의 구성이 빈도수 14으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리듬과 셈여림이 빈도수 10으로 두 번째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즉, 이해영역을 대신하고 있는 [음악 요소 및 개념 체계표]를 학년군별로 비교해 볼 때 가락, 리듬, 셈여림 요소 순으로 그 내용이나 위계가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 28> 학년군별 음악요소의 위계나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항목

| 구분 | 리듬 | 가락 | 화성 | 형식 | 셈여림 | 빠르기 | 음색 |
|-----|----|----|----|----|-----|-----|----|
| 빈도수 | 10 | 14 | 2 | 8 | 10 | 7 | 6 |

마.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방법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구성방침 중 학년군 설정에 비추어 볼 때, 음악과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방법의 ‘지도’가 학교급으로 설정된 것은 적절한 한가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본 질문에 대한 응답에 응답자의 44.0%가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고 38.0%가 ‘보통이다’를 선택하였으며 18.0%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의 부정적인 응답을 보였다.

<표 - 29> 학년군 제도 내에서 학교급별 지도 분류의 적절성

| 구분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지 않다. | 전체 |
|-----|--------|-------|-------|--------|------------|--------|
| 빈도수 | 1 | 43 | 38 | 18 | 0 | 100 |
| % | 1.0% | 43.0% | 38.0% | 18.0% | 0% | 100.0% |

다음으로 표현, 감상, 생활화의 내용영역에 맞추어 ‘내용영역별 지도’가 적합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46.0%가 ‘보통이다’로 응답하였고 46.0%가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였다. 내용영역에 비추어 ‘내용영역별 지도’가 적합하지 않다는 ‘그렇지 않다’의 응답은 8.0%로 부정적 응답은 적게 나타났다.

<표 - 30> 내용영역에 대한 ‘내용영역별 지도’의 효율적 구성

| 구분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지 않다. | 전체 |
|-----|--------|-------|-------|--------|------------|--------|
| 빈도수 | 1 | 45 | 46 | 8 | 0 | 100 |
| % | 1.0% | 45.0% | 46.0% | 8.0% | 0% | 100.0% |

새롭게 포함된 ‘학년군별 성취기준’과 [음악 요소 및 개념 체계표] 그리고 ‘학습활동예시’에 대한 적절한 활용지침을 교수·학습 방법에서 제시해주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응답으로는 ‘지위’에 따라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78.7%가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교수·학습 방법에서 새롭게 포함된 내용에 대한 적절한 활용지침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 31> 지위별 성취기준과 학습활동예시에 대한 활용 지침의 필요 여부

| 구분 | 매우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계 |
|----------|--------------|------------|---------------|---------------|---------------|----------------|
| 음악교육 전공생 | 0 (.0%) | 0 (.0%) | 10 (15.9%) | 42 (66.7%) | 11 (17.5%) | 63 (100.0%) |
| 중학교 교사 | 0 (.0%) | 0 (.0%) | 7 (29.2%) | 13 (54.2%) | 4 (16.7%) | 24 (100.0%) |
| 고등학교 교사 | 0 (.0%) | 0 (.0%) | 2 (40.0%) | 2 (40.0%) | 1 (20.0%) | 5 (100.0%) |
| 교수 | 1 (50.0%) | 0 (.0%) | 0 (.0%) | 1 (50.0%) | 0 (.0%) | 2 (100.0%) |
| 계 | 1(1.1%) | 0 (.0%) | 19 (20.2%) | 58 (61.7%) | 16 (17.0%) | 94 (100.0%) |

$\chi^2(df) = 50.186(9)$

*** p<.001

또한 같은 질문에서 ‘연령대’에 따라서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20대의 86.7%, 30대의 73.3%, 40대의 44.4%, 50대의 70.0%가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응답을 보였으며 전체 응답자의 78.7%가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교수·학습 방법에서 새롭게 포함된 내용에 대한 적절한 활용지침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 32> 연령별 성취기준과 학습활동예시에 대한 활용 지침의 필요 여부

| 구분 | 매우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계 |
|--------|--------------|------------|---------------|---------------|---------------|----------------|
| 20대 | 0 (.0%) | 0 (.0%) | 8 (13.3%) | 43 (71.7%) | 9 (15.0%) | 60 (100.0%) |
| 30대 | 0 (.0%) | 0 (.0%) | 4 (26.7%) | 5 (33.3%) | 6 (40.0%) | 15 (100.0%) |
| 40대 | 0 (.0%) | 0 (.0%) | 5 (55.6%) | 4 (44.4%) | 0 (.0%) | 9 (100.0%) |
| 50대 이상 | 1 (10.0%) | 0 (.0%) | 2 (20.0%) | 6 (60.0%) | 1 (10.0%) | 10 (100.0%) |
| 계 | 1 (1.1%) | 0 (.0%) | 19 (20.2%) | 58 (61.7%) | 16 (17.0%) | 94 (100.0%) |

$\chi^2(df) = 25.656(9)$

*** p<.005

이어서 창의적인 교수·학습 방법에 있어 표현영역의 악기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창의적인 교수·학습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64.0%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이 결과는 응답자의 대다수가 (‘예시’로 제시되었던) 국악 교수·학습 방법에서 국악기로만 연주할 수 있도록 악기의 사용을 제한하는 부분 등은 창의적인 교수·학습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 33> 창의적인 교수·학습에 악기 사용 제한이 주는 부정적 영향

| 구분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지 않다. | 전체 |
|-----|--------|-------|-------|--------|------------|--------|
| 빈도수 | 12 | 52 | 21 | 15 | 0 | 100 |
| % | 12.0% | 52.0% | 21.0% | 15.0% | 0% | 100.0% |

바.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평가

교육과정 내용체계에서 ‘이해’ 영역이 삭제됨으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 이해영역 지필평가가 무의미하게 느껴지는가의 질문에 대하여 53.0%가 무의미하다고 응답하여 이해영역 지필평가는 이해영역의 삭제로 그 의미가 모호해졌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 34> 이해영역의 삭제로 인한 지필평가의 의미 모호

| 구분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지 않다. | 전체 |
|-----|--------|-------|-------|--------|------------|--------|
| 빈도수 | 19 | 34 | 14 | 29 | 4 | 100 |
| % | 19.0% | 34.0% | 14.0% | 29.0% | 4.0% | 100.0% |

평가 방법의 내용 중에서는 각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태도’를 평가하기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느끼는지에 대한 질문에 61.0%가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나머지 20.0%가 ‘보통이다’와 19.0%가 ‘그렇지 않다’로 응답하였다. 이는 응답자의 대부분이 평가 방법에 제시된 태도 평가를 각 영역에서 행하기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 35> 평가 방법 중 ‘태도’평가의 어려움

| 구분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지 않다. | 전체 |
|-----|--------|-------|-------|--------|------------|--------|
| 빈도수 | 12 | 49 | 20 | 19 | 0 | 100 |
| % | 12.0% | 49.0% | 20.0% | 19.0% | 0% | 100.0% |

사. 2009 개정 교육과정과 음악과 교육과정 전반

결론적으로 새로 개정된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전반적인 구성을 살펴 볼 때, 본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이 설정한 기본 방향에 적합하게 개정되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첫 번째로, ‘창의 인재 육성’에 적합하게 개정되었는지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의 52.0%가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였고 나머지 긍정적 응답과 부정적 응답은 비슷한 응답률을 보였다.

<표 - 36>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 중 ‘창의 인재 육성’ 반영

| 구분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지 않다. | 전체 |
|-----|--------|-------|-------|--------|------------|--------|
| 빈도수 | 2 | 24 | 52 | 21 | 1 | 100 |
| % | 2.0% | 24.0% | 52.0% | 21.0% | 1.0% | 100.0% |

두 번째로,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음악의 생활화’의 기본방향이 효과적으로 반영되었는지를 묻는 질문에서 ‘보통이다’가 40.0%의 응답률이 나타났고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긍정적 응답은 비교적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표 - 37>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 중 ‘음악의 생활화’ 반영

| 구분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지 않다. | 전체 |
|-----|--------|-------|-------|--------|------------|--------|
| 빈도수 | 3 | 32 | 40 | 25 | 0 | 100 |
| % | 3.0% | 32.0% | 40.0% | 25.0% | 0% | 100.0% |

세 번째로, ‘미래사회에서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잘 반영하였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보통이다’를 응답자의 54.0%가 선택하였고,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의 부정적인 응답에 대한 비율은 29.0%가 나타났으며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긍정적인 응답에 대한 비율은 17.0%로 나타났다.

<표 - 38>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 중 ‘미래사회에서 요구하는 핵심역량’ 반영

| 구분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지 않다. | 전체 |
|-----|--------|-------|-------|--------|------------|--------|
| 빈도수 | 1 | 16 | 54 | 27 | 2 | 100 |
| % | 1.0% | 16.0% | 54.0% | 27.0% | 2.0% | 100.0% |

네 번째로, 음악과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 중 ‘교육과정 명료화’는 잘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질문에 24.0%만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고 46.0%가

‘보통이다’, 30.0%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여 응답자의 대부분이 긍정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지는 않았다.

<표 - 39>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교육과정 명료화’에 대한 인식

| 구분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지 않다. | 전체 |
|-----|--------|-------|-------|--------|------------|--------|
| 빈도수 | 1 | 23 | 46 | 26 | 4 | 100 |
| % | 1.0% | 23.0% | 46.0% | 26.0% | 4.0% | 100.0% |

마지막으로,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전반적인 내용과 특성에 비추어 본 결과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 강조하는 집중이수제가 음악교과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79.0%가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였고 ‘그렇지 않다’는 단 5.0%에 그쳤다. 즉, 응답자의 대부분은 음악교과의 특성에 미루어 볼 때, 음악교과의 집중이수제 실시는 적합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 40> 음악교과 집중이수제 실시의 부적합 여부

| 구분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지 않다. | 전체 |
|-----|--------|-------|-------|--------|------------|--------|
| 빈도수 | 57 | 22 | 16 | 5 | 0 | 100 |
| % | 57.0% | 22.0% | 16.0% | 5.0% | 0% | 100.0% |

IV.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모색

1. 영역별 문제점 도출

앞에서 이루어졌던 ‘Ⅲ.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내용에 대한 의견 조사 분석’에서의 조사 연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들을 영역별로 도출해보고 그 개선 방안을 모색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목표 영역

‘목표’영역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문제점을 도출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년군의 설정에 비추어 볼 때 학교급별 목표의 설정은 적합하지 않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 운영방침 중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학년 간 상호 연계와 협력을 통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학년군을 설정한다.”를 내세워 학년군의 설정을 제도화 했지만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는 [음악의 요소 및 개념 체계표]나 성취 기준 등은 학년군별로 구성되어 있고 ‘목표’는 학교급별 목표를 진술하여 일관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둘째, 초등학교급 목표와 중학교급 목표의 위계가 뚜렷하게 설정되어 있는가에 대한 설문에 응답자의 15.8%만이 긍정적인 응답을 보인 것으로 볼 때, 음악과 교육과정의 초등학교급 목표와 중학교급 목표 간의 위계가 분명하지 않다는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다. 다음은 본 설문과 관련하여 응답자들이 제시한 의견 중 일부분을 정리한 것이다.

- 감상과 생활화 체계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 초등학교급 목표와 중학교급 목표가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 위계가 분명하지 않음.
- 초등학교 안에서 위계 설정이 없으므로 단계적인 목표를 가지고 배울 수 없다.

나. 내용체계

내용체계에서 ‘이해’가 전 영역에서 걸쳐 이루어지고 ‘이해영역’은 삭제된 것을 문제점으로 도출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앞서 분석한 자료에서도 [음악의 요소 및 개념]의 이해가 전 영역에서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내용체계가 구성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에 22.8%만이 긍정적인 응답을 나타낸 것으로 보아 알 수 있다. 내용영역에 따라서 고르게 ‘이해’를 다룰 수 있는 내용체계로 설정되어 있지 않아 이해영역 교수·학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음악과 교육과정 시안 공청회의 ‘토론4’를 살펴보면, 아직 2007 개정 교육과정이 본격적으로 정착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기존 교육과정에서 나누었던 대영역인 활동, 이해, 생활화에서 이해영역이 삭제되면서 이루어지는 변화로 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는 언급을 찾아볼 수 있다. 다음은 본 문제점에 대한 응답자의 의견이다.

- ‘이해’는 음악교육의 기초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친다.
- 활동중심으로만 내용체계가 강조되고 이해부분이 줄어든 것이 음악교육이라기보다 음악을 소재로 놀이하듯 시간으로 전락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 이해영역을 없애고 [음악요소 및 개념 체계표]에 넣은 것은 사실상 교육과정에서 이해만 없어졌다 뿐이지 실상 수업 속에서는 교육과정에 없는 이해, 음악요소를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효과적이지 않다.
- 음악을 표현, 생활화 하더라도 음악 지식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봄. 이해영역이 독립적으로 있어야 함.
- 각 영역에 걸쳐 ‘이해’가 얼 만큼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알 수 없다. ‘이해’가

숙지되어야 바른 표현, 특징 살린 표현, 악곡 특징 이해, 음악 만들기가 가능한데 이해 영역의 삭제로 '이해'를 다루기에 갈피를 잡기 힘들다. 그렇다면 이해 영역의 삭제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다. 성취기준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조사연구를 시행하면서 음악과 교육과정 전반적인 부분 중 '선택 이유 또는 의견제시'가 가장 많았던 부분이 '성취기준'이었다. 응답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하여 성취기준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여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계열성의 모호함으로 인해 학년군별 성취기준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같은 내용체계를 학년군별로 비교하여 볼 때 위계가 뚜렷하게 설정되어있지 않거나 내용체계에는 구성되지 않은 부분이 성취기준에 제시된 경우도 있었다. 다음은 응답자들의 의견 중 계열성에 관련된 것을 나열한 것이다.

- 위계가 잘 되어 있지 못한 것 같다. 같은 내용을 말만 바꾸어 표현한 것 같다.
- '표현'내용체계에 언급되어있지 않은 내용을 성취의 기준으로 잡은 것이 맞지 않는 것 같다.
- 여럿이 외워 부르고-> 개성 있게 부르는 것은 위계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악곡의 특징을 살려 어떻게 개성 있게 부른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 '개성 있다'라는 표현이 애매하다.
- 같은 내용이다. 발전된 내용이 아닌 것 같다.
- 초등학교와 중학교 성취기준의 차이가 없어 보임.
- 위계가 분명하지 않다.
- 다양한 문화권-> 다양한 시대는 위계라고 보기 어렵다.

둘째, 성취기준이 학교현장의 실태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도출되었다. 예를 들어 성취기준에서 제시하는 수준의 '신체표현'이나

‘음악 만들기’, ‘문화행사 경험’을 하기에는 학교현장에 적당한 장소나 환경이 적당치 않아 시행하기 어려운 면이 많다. 또한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 학생들에게 신체표현을 유도하여 수업을 이끌어가기에 어렵고 또한 현 교육 실정에서 학생들에게 문화행사 참여까지 유도하는 것 또한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응답자들의 의견을 선별한 것이다.

- 기초 형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교육이며, 기본 개념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1-2-(2), 1-2-(4), 1-3-(1), 1-3-(2), 1-3-(3) 사항은 현 교육 실태와 학생수준이 낮아 할 수 없고 꿈같은 얘기다.
- 신체표현을 잘 안 하려고 하고 장소가 적당치 않음.
- 중학생은 사춘기 시절에 많은 표현(특히, 신체표현)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신체표현이 실제로 적용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음악을 통해 음악성을 기르는 것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며 신체표현이 음악성과 큰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 먼저 묻고 싶다.
- 학생들의 수준이 다 다르고 음악을 직접 만들 만한 학교 시설이 갖추어 있지 않다.
- 실현 가능성이 현 체제 교육에서는 힘들다.
- 요즘의 학생들은 문화행사에 참여할 기회가 부족합니다. 다른 방식으로 활용할 방법을 찾아야 할 듯합니다.
- 음악단체에 있지 않으면 실현하기 힘든 목표다. 또한 문화 행사에 참여할 정도의 수준의 아이들이 많지 않다. 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목표다.

셋째, 현 교육현장에서의 학생 수준에 맞지 않는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특히 국악 부분이나 음악 만들기의 경우 학교 음악 수업 내에서 도달하기 어려운 성취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관련 의견은 다음과 같다.

- 학생 수준에 맞지 않는 높은 기준인 것 같다.
- 표현 항목은 중학생 아이들이 하기엔 약간의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 다른 과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업시수 안에 성취하기 힘들 것 같다.
- 초등학생의 성취수준에 맞지 않다. 어려움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 시조는 고학년도 어려워하는 종류임.
- 5-6학년에게는 시조의 초장을 노래하는 것(악보 보고 부르기)은 어렵다고 생각함.
- 배경음악 만들 수 있을까요? 전교에서 1-2명 할 수 있을까? 고등학생도 어려워하는데 중학

생은 더 어려워 할 겁니다.

-창의적으로 음악 만들어 표현하는 것에서 목표에 도달하기에 너무 어려운 것 같다.

라. 음악 요소 및 개념 체계표

이해영역의 삭제 대신 이해영역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음악요소 및 개념 체계표] 역시 ‘학습 수준 조절’과 ‘분명한 위계 설정’이 요구된다. 학년군별로 비교하여 볼 때, 동일하게 제시되었거나 위계를 느끼기에 모호하여 구체화 되지 않은 요소를 찾아보기 쉽다. 반면, ‘가락’요소는 대부분 수준이 높아 학생들이 학습하기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응답자들의 관련 의견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요소와 개념은 이렇게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중학교에 올라오는 아이들 대부분 음계, 화음, 토리, 시김새에 대한 이해도가 현저히 낮음.

-초 5-6에서 장, 단음계는 어려운 내용이다. 단음계의 종류까지 이해하고 가르칠 수 있을까?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운 개념들이 많습니다.

-위계가 분명하지 않다.

-위계를 찾아볼 수 없다.

-의미, 내용이 친편일률적으로 똑같다. 구분이 없음.

-박자, 말 붙임 새, 여러 지역의 토리, 셈여림 등 비슷한 요소의 학년군별 차이가 무엇인지 분명치 않다.

마. 교수 · 학습 방법

교수 · 학습 방법에서는 새롭게 편성된 ‘성취기준과 학습활동예시’에 대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보완이 요구되며 내용영역별 지도에서 창의적 표현에 있어 악기의 사용을 제한하여 오히려 창의적인 표현이 제약

을 받도록 한 부분의 수정을 필요로 한다. 이는 관련 질문의 79.0%, 64.0%로 나타난 높은 응답률을 통하여 도출 가능하다. 다음은 응답자의 의견이다.

- 성취기준의 '표현'영역에 1-2에 보면 개성 있게 노래 부르거나 악기 연주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국악곡을 국악기로만 연주하는 것은 창의적 사고를 제한하는 것 같다.

바. 평가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평가'는 이해영역의 삭제로 인해 지필평가가 무의미하게 느껴지는가에 대한 질문에 53.0%가 그렇다고 응답한 것을 바탕으로 새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는 지필평가의 의미가 모호해지는 것이 문제점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 평가 방법에 등장하는 '태도'에 대한 평가를 응답자의 61.0%가 어렵다고 느끼는 것으로 '태도'평가가 하나의 문제점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다음은 관련 내용에 대한 응답자의 의견이다.

- 이해 영역은 전 영역에 걸쳐 필요한 영역이다. 그러므로 평가 또한 필요한데, 이해 영역이 사라짐으로써 평가도 무의미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음악교육에서 이해는 가장 기본이고 바탕이 되는 영역이다.
- 이해 영역이 삭제됨으로 인해서 지필평가를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실시할지 당혹스러운 면이 있음. 지필 평가의 내용과 그것을 어떻게 준비하고 가르쳐야 하는지 아직 개념이 정립 되지 않음.
- 짧은 시간 동안 많은 학생들을 매시간 누가 기록 및 누가 평가 하는 것은 교육현장의 실재를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 사실상 사람에 따른 음악 선호도가 다르며 교과에 대한 선호도 자체 역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태도'평가는 애매한 항목 중 하나이다.
- 교사의 주관성으로 태도를 평가해야 하는데 객관성 여부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사. 2009 개정 교육과정과 음악과 교육과정 전반

2009 개정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음악과 교육과정 전반에 가장 크게 발생하는 문제점은 '집중이수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집중이수제가 음악교과에 부적합하다고 여기는 응답자의 비율이 79.0%인 것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데 음악교육의 단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특성과 창의성·인성·전인 교육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 특성 등에 따라 집중이수제는 적합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나타난다. 다음은 설문 응답자의 의견이다.

- 음악을 단기간에 몰아서 한다고 그것이 교육적일까? 음악을 생활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면서 집중이수제를 강조하는 것은 맞지 않다.
- 음악교과는 집중적으로 배우고 그만두는 과목의 특성이 전혀 아님. 정서 함양과 예술적인 안목을 위해 3개년에서 고루 교육되어야 함.
- 생활화와 반대되는 집중이수제는 교과가 추구하는 목표와 상반됨.
- 집중이수제는 아동의 발달 특성을 무시한 것이다.
- 집중이수제는 누구를 위한 목적인가? 현장의 교사와 학생들에게는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하고 있다.
- '창의인재육성', '문화예술교육증진'이 2009 개정 교육과정이 나아가야 할 바라면 집중이수보다는 연간 운영되어야 바람직하다.
- 현장에서 많은 집중이수 교과 선생님들의 불만이 많음. 음악은 중학교 전 학년을 통해 교육 되어야 함. 집중이수의 장점 보다는 단점이 더 많음.
- 음악 집중이수제를 폐지하였으면 합니다. 봄노래를 2학기 가을에 부르고 풍년가를 1학기 봄에 부르는 현상입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송을 여름에 부르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 집중이수제로 인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학생들의 심신, 정서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어진다. 1학년1학기, 2학년2학기에 중학교 음악을 마무리 하다 보니 정서적으로 흐트러진 모습이 눈에 많이 보이고 있음.

2. 영역별 개선방안

가. 목표 영역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개정 내용인 학년군 설정에 따라 음악과 교육과정의 목표도 ‘학년군별 목표’로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음악과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는 성취기준, [음악의 요소 및 개념체계] 등과 동일하게 학년군별 목표로 진술하여 일관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나. 내용체계

내용체계에서는 이해영역의 삭제 대신 [음악의 요소 및 개념]의 이해가 전 영역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교육과정의 취지와는 다르게 모든 영역에서 [음악의 요소 및 개념]를 다루기에 효과적인 내용체계가 구성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두 가지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감상영역에 치우쳐 제시되어 있는 내용체계를 넘어서 표현영역과 생활화영역을 위한 ‘이해’가 가능하도록 내용체계를 수정·보완을 이루고 연결된 성취기준과도 일관성을 유지하여 전 영역에서 ‘이해’를 다루기에 모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2007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이 본격적으로 정착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도 ‘활동, 이해, 생활화’의 기존 내용영역을 유지하면서 이에 적합한 성취기준과 학습활동예시를 제시하는 것 또한 고려해 볼 수 있다.³¹⁾

다. 성취기준

성취기준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준 설정에 앞서 학교 현장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요구된다. 교육과정 시안에 대해 토론회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현장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음악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거나, 음악과 교육과정 연구진에 현직 교사들의 비율을 늘려 실제 학교 현장에 적합한 성취기준을 설정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학생들에게 적당한 성취기준 설정, 학습 수준의 조절, 현장 실현 가능성 등은 ‘학교현장 이해’라는 맥락에서 접근한다면 대부분 개선 가능할 것이다.

라. 음악 요소 및 개념 체계표

[음악 요소 및 개념 체계표]는 현 체계표에서 학년군별 요소가 동일하게 설정된 부분은 위계가 구분되도록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면, 급격히 수준이 높게 설정된 부분은 응답자와 같은 음악교육과 관련된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현장의 학생들에게 적절한 수준을 조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마. 교수·학습 방법

교수·학습 방법에서는 두 가지의 개선사항을 필요로 한다. 새롭게 편성된 ‘성취기준과 학습활동예시’활용에 대한 혼란이 없도록 관련 지침을 교수·학습 방법에서 진술하여 교사가 충분히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내용영역별 지도에서 국악기로 악기의 사용을 제한

31) 성기련 「음악과 공통 교육과정 개정 시안의 특징과 내용에 대한 토론」 (2009 개정 교육 과정에 따른 음악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 공청회 토론4, 2011) 43쪽

한 부분은 창의인재 육성을 고려하여 창의적인 표현에서는 악기의 사용 등의 표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혹은 국악기로만 반주, 연주 하는 것을 규정짓기보다 국악기를 사용을 권장하거나 국악기를 기준으로 여러 가지 악기를 사용하도록 제안하는 정도가 적절할 것이다.

바. 평가

지필평가의 무의미함에서 오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이해’영역의 삭제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지필평가가 주요 평가로 지속되어야 한다면 ‘이해’영역이 설정되어 관련 내용을 효과적으로 학습해야 하며, ‘이해’영역의 삭제가 지속되어야 한다면 지필평가의 비중은 줄이고 실기평가나 실음평가에 비중을 두어 평가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더불어 ‘태도’에 대한 평가의 어려움은 ‘태도’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세워 제시하거나 모둠을 구성하여 평가하는 등의 평가 방안을 제시하여 교사 1인이 다수의 태도를 평가함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 2009 개정 교육과정과 음악과 교육과정 전반

음악교과에서 집중이수제의 실시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은 제도적 개선으로 음악교과를 집중이수제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음악의 생활화, 창의적 표현, 전인적 인간 양성 등은 지속적인 음악교육이 이루어 져야만 실현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이 적용된 체제에서 현실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하다면 중학교 3년 동안 4단위 이하 이수로 규정되어 있는 음악교과의 시수를 1개 학년

에서 주당 4시간으로 몰아서 수업하는 방법보다는 중학교 3개 학년 중 2개 학년 정도로 나누어서 운영하는 방법이 적절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교육의 중점 사항으로 ‘창의성 · 인성 · 전인적 성장’은 그 어느 때 보다도 강조되고 있고 이를 제외하고는 미래사회의 교육을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 학생들이 반드시 갖추어 나가야 할 핵심 역량으로 자리 잡았다. 음악교과는 앞서 언급한 미래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발달시키는 것은 물론 올바른 정서를 형성하기에 반드시 필요한 교과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음악교육의 중요성을 깊게 인식하고 제도적 차원의 개선은 물론 음악교육 자체의 내실화를 꾀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의한 제도적 문제점을 중점으로 다루었던 선행연구들에 이어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봄으로써 현직 음악교사와 음악교육과 교수, 예비 음악교사의 의견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탐색하여 제시하였는데 이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과 교육과정 구성내용의 ‘적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서 적정화를 위해 고려해야 할 핵심사항은 ‘위계설정’과 ‘실현가능성’이다. 이는 내용체계에서부터 [음악요소 및 개념 체계표]에 이르기까지 영역별 연계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학년군별 적절한 위계가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음악과 교육과정의 내용 구성에 앞서 학교현장의 시설구비 실정이나 학생들의 수준 및 특성 등을 현실적으로 파악한 후 실현가능한 내용을 갖추어 음악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둘째, 음악교육과정 개발에 보다 많은 음악교사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음

악과 교육과정을 개정하는 연구진과 협력진에 현직 교사들의 비중을 강화함으로써 현 학교현장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음악과 교육과정을 구성하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음악과 교육과정에 앞서 음악과 교육과정이 적용되고 있는 학교현장에 대한 실태조사나 현직 교사들의 인식조사 등의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겠다.

셋째,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충분한 연구기간이 주어져야 한다.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은 약 4개월의 짧은 연구기간에 의해 개정되었다. 한 교과목의 교육과정을 개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기간이다. 교육과정 총론은 물론 음악과 교육과정에 있어서도 충분한 교육과정 개발 연구기간이 주어져야만 다방면에서 보다 효과적인 교육과정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음악교육에 대한 성찰로 자구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음악교육의 제도적 개선과 국가적 지원 요구와 더불어 우리 음악교육을 위한 성찰과 노력 또한 필요하다. 음악과 교육과정, 교사의 전문성, 다양한 음악수업 컨설팅 등 현재 우리 음악교육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음악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여 보다 발전적인 음악교육의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다섯째, 집중이수제 실시 대상에서 음악교과를 제외시켜야만 한다. 앞서 'IV.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모색'에서 나타난 것처럼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이 적용되면서 이미 현장에서는 음악교과 집중이수제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집중이수제 실시에서 음악교과를 제외시켜야만 효과적인 음악과 교육과정의 운영은 물론 미래사회에서 요구하는 창의인재육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혹은, 이미 적용된 체제이므로 불가피하다면 중학교 음악교과의 시수를 1개 학년에서 주당 4시간으로 몰아서 수업하는 방법보다는 중학교 3개 학년 중 2개 학년 정도로 나누어서 운영하는 방법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2. 제언

본 연구에서 나아가 더 고려되어 연구되어야 할 문제들에 대하여 몇 가지를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운영이 학교 현장에서 실제 적용된 후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적용상의 문제점들과 인식에 대하여 다시 한 번 파악해야 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은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 대한 고찰을 통한 것으로, 음악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교과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음악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성찰적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음악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설문 및 면담 대상자들은 음악교육 관련자로만 한정되었으므로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수요자인 학생을 비롯해 학부모, 사회학자, 교육행정가 등 음악교육 관련자만이 아닌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조사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의 내용은 음악과 교육과정 중 공통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고등학교 음악과 선택교육과정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창동(2006). 학교교육 내실화 후속 지원 연구(IV).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교육과학기술부(2009).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총론.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9-41호
- 교육과학기술부(2011). 음악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1-361호 [별책12]
- 교육과학기술부(2011). 음악과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시안 연구 개발.
- 김봉규(2012). 2009 개정 교육과정 적용에 대한 교사 인식 분석: 강원도 교육청 소속 중학교 교사들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혜(2011).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중등 음악교사의 인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미(2012. 03. 29) 전국 시·도 교육감“음악·미술·체육, 집중이수 제외하라”. 이데일리 뉴스 검색.
- 민경훈(2007). 독일 중등학교 음악교육에 관한 분석 연구. 예술교육연구 5-1.
- 민경훈(2009).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문제점 및 음악교육의 위기. 음악교육연구 37.
- 박순경(2008).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선진화 개혁 방안 연구(I).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박정은(2011).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중등 음악교사의 인식 조사 연구: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석문주·최미영(2011). 외국의 음악과 교육과정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음악

과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시사. 교육과정연구.

신은희(2009). 국회교육과정토론회 발제문과 토론문 중 미래형 교육과정 토
론원고

신재한(2012). 교육과정의 이론과 실제. 태영출판사.

윤성원(2010). 공교육으로서 음악교과교육의 정체성. 음악교육공학 제10집.

이대실(2003).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대
구지역의 중학교를 중심으로.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사야(2012).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중등학교 음악교과에 미치는 영향과 문
제점에 관한 고찰: 중등학교 과정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
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선하(2007). 창의성교육: 반성적 접근. 창조교육논총 9호.

정지은(2012). 국내 창의성 교육 관련 논문 분석을 통한 창의성 교육 연구의
동향 및 의미 탐색.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조성기(2012). 예술고등학교 음악전공교육의 활성화 방안. 음악교육공학 제
14집.

채로이아(2010). 2009 개정 교육과정 도입에 따른 음악교과의 영향 전망. 음
악교육연구 제39집.

최은영(2011). 음악교사의 정체성에 관한 현황 조사: 전라북도 전주시 고등
학교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1).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음악과 교육과정 개
정 시안 공청회. 연구자료 ORM 2011-31

ABSTRACT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the Revised Music Curriculum of 2009

Jeong, Chae won
Major in Music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examine the Revised Music Curriculum of 2009 and its perceptions and search for ways to improve the music curriculum. For those purposes, the investigator analyzed the Revised Curriculum of 2009 and the Revised Music Curriculum of 2009 to identify elements to explore in the study, as well as related previous studies to find implications for the study.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questionnaire items were developed for music education experts, incumbent teachers, and music education majors. Then the findings were used to identify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the Revised Music Curriculum of 2009, which was the research objective, and draw conclusions.

The findings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the Revised Music Curriculum of 2009" led to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the content of music curriculum should be "optimized" by taking "hierarchy setting" and "feasibility" into account. The respondents pointed out that connections should be established among the domains from content system to "table of musical elements and concept systems" and that proper hierarchy should be set according to the grade bands. They also said that the content organization of music curriculum failed to realistically understand the school facilities and student levels and characteristics.

Second, more music teachers need to participate in the development of music curriculum. Enough research on the current state of school and perceptions of incumbent teachers should precede the development of music curriculum in order to provide a music curriculum that can be efficiently used in school. Most of all, it is critical to increase the percentage of incumbent teachers in the research and cooperation committee in charge of music curriculum revision.

Third, enough research time should be secured for curriculum development. It took undoubtedly short four months or so to do research for the Revised Music Curriculum of 2009. Enough time must be invested in curriculum development not only for curriculum introduction but also for music curriculum so that more effective curriculum development will be possible in a range of fields.

Fourth, self-rescue plans should be made through reflection upon music education. There should be reflection and effort for music education to critically examine current music education in curriculum, teacher professionalism, and various music class consultations and think over ways to increase the quality of music education, thus contributing to better future of

music education.

Fifth, the music subject should not be included in the intensive course system. The concerning problem is perceived by both teachers and students today.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the inclusion of the music subject in the intensive course system. If that is not possible with the introduction of Revised Curriculum of 2009 already in application, the four lesson hours per week in a school year in middle school should be divided into two lesson hours per week over a period of two school years.

부록1 (설문지)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음악교육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들께 존경을 표하며 바쁘신 중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듣고,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해보기 위한 것입니다.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연구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개인정보도 공개 되지 않사오니, 솔직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응답에는 20분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2012년 4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정채원 드림

※ 해당되는 곳에 V표를 해 주십시오.

| 응답자 인적사항 | |
|---------------------------------------|----------------------------------------------|
| 1. 성별 | ① 남() ② 여() |
| 2. 연령 | ① 20대() ② 30대() |
| | ③ 40대() ④ 50대 이상() |
| 3. 지역 | ① 서울특별시() ② 경기도() ③ 기타() |
| 4. 지위 | ① 음악교육 전공생() ② 중학교 교사() |
| | ③ 고등학교 교사() ④ 교수() |
| 5. 경력 (음악교육 전공생 제외) | ① 5년 이하() ② 6-10년() |
| | ③ 11-20년() ④ 21년 이상() |
| 6.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 또는 연수 경험 | ① 있다() ② 없다() |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목표**

※ 다음 내용을 참고하신 후, 질문에 대해 동의하시는 수준에 V표를 해 주십시오.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2page 중)

3. 목표

‘음악’은 다양한 음악 활동을 통하여 음악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음악성과 창의성, 음악의 역할과 가치에 대한 안목을 키움으로써 음악을 삶 속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교과이다. 음악 교과는 음악적 정서와 표현력을 계발하고, 문화의 다원적 가치를 인식하여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창의적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우리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세계 시민으로서 문화적 소양을 지닌 전인적 인간이 되는데 기여한다.

[초등학교]

- 가. 다양한 음악활동을 통하여 음악의 아름다움을 경험한다.
- 나. 음악의 기초 기능을 익혀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악곡의 특징을 이해하며 감상한다.
- 다. 음악의 가치를 인식하고, 음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음악을 즐기는 태도를 갖는다.

[중학교]

- 가. 다양한 음악 활동을 통하여 음악의 아름다움을 경험한다.
- 나. 음악의 연주 기능을 익혀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역사와 문화적 맥락 속에서 악곡의 특징을 이해하며 감상한다.
- 다. 음악의 가치를 인식하고, 음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음악을 활용하는 태도를 갖는다.

| 설문항목 | 매우 그렇 다 | 그렇 다 | 보통 이다 | 그렇 지 않다 | 매우 그렇 지 않다 |
|-------------------------------------------------------------------------------------------|---------------|---------|----------|---------------|---------------------|
| 1.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문서 구성 체계 변화 중 '성격'항을 삭제한 대신 관련 내용을 목표 항목에 포함시켜 제시한 것은 의미가 있다. | | | | | |
| 2.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3-4, 5-6, 7-9 학년군 설정에 비추어 볼 때, 음악과 교육과정의 목표가 학교급으로 분류된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 | | | | |
| 3. 초등학교급 목표와 중학교급 목표 간의 위계가 뚜렷하게 설정되었다. | | | | | |
| 4. 학교급별 각 목표의 내용은 표현/감상/생활화의 내용 체계 구분에 따라 적절하게 설정되었다. | | | | | |

※ 선택 이유 또는 관련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십시오.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내용체계**

※ 다음 내용을 참고하신 후, 질문에 대해 동의하시는 수준에 V표를 해 주십시오.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3page 중)

4. 내용의 영역과 기준

가. 내용 체계

| 영역 | 내용 체계 |
|--------|------------------------|
| 1. 표현 | 1-1. 바른 자세로 표현하기 |
| | 1-2. 악곡의 특징을 살려 표현하기 |
| | 1-3. 창의적으로 음악 만들어 표현하기 |
| 2. 감상 | 2-1. 음악의 요소 및 개념 이해하기 |
| | 2-2. 악곡의 특징을 이해하며 감상하기 |
| 3. 생활화 | 3-1. 음악을 즐기는 태도 갖기 |
| | 3-2. 우리 음악의 가치 인식하기 |

* 2009교육과정의 내용 영역은 표현/감상/생활화로 구성되면서 이해 영역이 없어지고 학년군별 [음악 요소 및 개념 체계표]를 뒤 부분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 설문항목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지 않다 |
|-----------------------------------------------------------------------|---------------------------------|--------------------------|-------------------------------------|-------------------------------------|-----------|
| 1. 표현/감상/생활화로 영역을 구분한 것은 음악교육을 위해 타당하다. | | | | | |
| 2. 내용 영역이 표현/감상/생활화로 설정되어 활동 중심의 음악교육이 활성화 될 것이다. | | | | | |
| 3. 각 내용 영역(표현/감상/생활화)에 대하여 내용체계가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 | | | | |
| 4. [음악의 요소 및 개념]의 이해가 표현/감상/생활화의 전 영역에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용체계가 구성되었다. | | | | | |
| 5. 교육과정 마다 변화해 온 내용체계 중 음악교육을 위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체계는 무엇입니까? | 제6차 -이해 -표현 -감상 () | 제7차 -이해 -활동 () | 2007개정 -활동 -이해 -생활화 () | 2009개정 -표현 -감상 -생활화 () | |

※ 선택 이유 또는 관련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십시오.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중 1. 표현영역**

※ 다음은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내에서 제시된 성취기준입니다.
 내용 중 5~6 학년군과 중학교 1~3학년군의 위계가 분명하지 않거나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항목에 V표 하신 후 아래의 빈 칸에 이유를 써 주십시오.

| 영역 | 내용 체계 | 5 ~ 6 학년군 | V |
|-----------------------------------------------------------------------------|------------------------|---------------------------------------------------------------------------|---|
| 표현 | 1-1. 바른 자세로 표현하기 | (1) 바른 자세와 호흡으로 노래 부를 수 있다. (2) 바른 자세와 주법으로 악기를 연주할 수 있다. | |
| | 1-2. 악곡의 특징을 살려 표현하기 | (1) 5~6학년 수준의 음악 요소 및 개념을 이해하며 노래 부르거나 악기로 연주 할 수 있다. | |
| | | (2) 악곡에 어울리는 신체 표현을 할 수 있다. | |
| | | (3) 악곡의 특징을 살려 혼자 또는 여럿이 외워서 노래 부르거나 악기로 연주 할 수 있다. | |
| | 1-3. 창의적으로 음악 만들어 표현하기 | (4) 동요나 민요, 시조의 초장을 듣고 부르거나 보고 부를 수 있다. | |
| | | (1) 상황이나 이야기를 음악으로 표현할 수 있다. | |
| (2) 제재곡의 노랫말을 바꾸거나 노랫말에 맞는 말붙임 새로 만들 수 있다. (3) 제재곡의 일부 가락을 바꾸어 표현할 수 있다. | | | |
| 영역 | 내용 체계 | 중학교 1 ~ 3 학년군 | V |
| 표현 | 1-1. 바른 자세로 표현하기 | (1) 바른 자세와 호흡 및 정확한 발음으로 노래 부를 수 있다. (2) 바른 자세와 정확한 주법으로 악기를 연주할 수 있다. | |
| | 1-2. 악곡의 특징을 살려 표현하기 | (1) 7-9학년 수준의 음악 요소 및 개념을 이해하며 노래 부르거나 악기로 연주 할 수 있다. | |
| | | (2) 악곡의 종류에 어울리는 신체 표현을 할 수 있다. | |
| | | (3) 악곡의 특징을 살려 개성 있게 노래 부르거나 악기로 연주 할 수 있다. | |
| | 1-3. 창의적으로 음악 만들어 표현하기 | (4) 예술가곡, 민요, 판소리 한 대목, 가곡의 초장을 듣고 부르거나 보고 부를 수 있다. | |
| | | (1) 다양한 예술에 어울리는 배경음악을 만들 수 있다. | |
| (2) 주제에 맞는 노랫말과 극본을 만들어 음악극으로 표현할 수 있다. (3) 주어진 조건에 따라 간단한 가락을 만들 수 있다. | | | |
| ※ 선택 이유, 보다 더 적절한 성취기준, 기타 의견 등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 | | |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중 2. 감상, 3. 생활화 영역**

※ 다음은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내에서 제시된 성취기준입니다.
 내용 중 5~6 학년군과 중학교 1~3학년군의 위계가 분명하지 않거나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항목에 V표 하신 후 아래의 빈 칸에 이유를 써 주십시오.

| 영역 | 내용 체계 | 5 ~ 6 학년군 | V |
|-----|------------------------|--------------------------------------------------------------------------------------------|---|
| 감상 | 2-1. 음악의 요소 및 개념 이해하기 | (1) 5~6학년 수준의 음악 요소 및 개념에 대해 구별할 수 있다. | |
| | 2-2. 악곡의 특징을 이해하며 감상하기 | (1) 다양한 문화권의 음악을 듣고 음악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다. (2) 의식음악, 축제음악, 풍류음악 등을 듣고 쓰임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 |
| 생활화 | 3-1. 음악을 즐기는 태도 갖기 | (1) 생활 속에서 음악을 활용하며 즐길 수 있다. | |
| | 3-2. 우리 음악의 가치 인식하기 | (1) 우리 음악의 소중함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 |
| 영역 | 내용 체계 | 중학교 1 ~ 3 학년군 | V |
| 감상 | 2-1. 음악의 요소 및 개념 이해하기 | (1) 7~9학년 수준의 음악 요소 및 개념에 대해 구별할 수 있다. | |
| | 2-2. 악곡의 특징을 이해하며 감상하기 | (1) 다양한 시대의 음악을 듣고 음악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다. (2) 음악을 듣고 현대사회에서 음악의 다양한 쓰임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 |
| 생활화 | 3-1. 음악을 즐기는 태도 갖기 | (1) 생활 속에서 음악을 활용하며 문화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 |
| | 3-2. 우리 음악의 가치 인식하기 | (1) 세계 속에서 우리 음악의 위상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 |

※ 선택 이유, 보다 더 적절한 성취기준, 기타 의견 등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음악 요소 및 개념 체계표] | | | |
|------------------------------------------------------------------------------------------------------------------------------------------------------------------|------------------------------------------------------------------------------------------------------------------------------------------------------------------------|-------------------------------------------------------------------------------------------------------------------------------------------------------------------|--------|
| ※ 다음은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내에서 제시된 음악 요소 및 개념 체계표 입니 다. 학년군별 내용의 위계가 분명하지 않거나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항목에 V표 하신 후 아래의 빈 칸에 이유를 써 주십시오. | | | |
| [음악 요소 및 개념 체계표] | | | |
| 초등학교 3~4학년군 | 초등학교 5~6학년군 | 중학교 1~3학년군 | V 표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 박자 • 장단 (자진모리, 세마치), 장단의 세 • 음의 길고 짧음 • 간단한 리듬꼴 • 장단꼴 • 말붙임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 박자 • 장단(중중모리, 굿거리, 시조), 장단의 세 • 여러 가지 리듬꼴 (당김음 포함) • 장단꼴(다는 형, 맺는 형) • 말붙임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가지 박자 • 장단(중모리, 엇모리, 가곡), 장단의 세 • 여러 가지 박자의 리듬꼴 • 여러 가지 장단의 장단꼴 • 말붙임새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의 높고 낮음 • 차례가기와 뛰어가기 • 시김새(떠는 소리, 흘러내리는 소리, 꺾는 소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이름, 계이름, 올명 • 장음계, 단음계 • 여러 지역의 토리 • 시김새(떠는 소리, 밀어 올리는 소리, 구르는 소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가지 음계 • 여러 지역의 토리 • 여러 가지 시김새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리의 어울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3화음 • 다양한 소리의 어울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팔림 7화음 • 다양한 소리의 어울림, 중지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식(떼기고 받는 형식, ab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식(긴 자진형식, aba, AB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식(연음형식, 엮음형식, 한배에 따른 형식, 푸가, 론도, 소나타, 변주곡, ABA 등)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셈여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셈여림의 변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셈여림의 변화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빠르기/한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빠르기의 변화/ 한배의 변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빠르기의 변화/ 한배의 변화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소리, 물체 소리, 타악기의 음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악기, 현악기의 음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가지 음색 | |
| <p>※ 선택 이유, 보다 더 적절한 내용, 기타 의견 등을 제시하여 주십시오.</p> | | | |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방법

※ 다음 내용을 참고하신 후, 질문에 대해 동의하시는 수준에 V표를 해 주십시오.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8~9page 중)

5. 교수·학습 방법

나. 학교급별 지도

(1) 초등학교

초등학교 학생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학습 내용 및 활동을 선택하며, 음악 활동을 중심으로 기초적인 표현력과 이해력을 신장시키도록 한다. 또한 즐겁고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음악을 즐길 수 있는 마음 자세를 기르도록 한다.

(2) 중학교

중학교 학생의 지적 호기심과 신체적 변화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음악 표현 능력과 역사,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의 음악 이해력을 신장시키도록 한다. 또한 학교 내외의 음악 활동에 적극 참여 하게 함으로써 음악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기르도록 한다.

다. 내용 영역별 지도

(1) 표현

(가) 표현 영역에서는 학생의 느낌과 생각을 목소리, 악기, 신체, 그림 등으로 창의적으로 표현하도록 지도한다. 국악 학습에서는 전 영역에서 가·무·악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나) 노래 부르기에서는 바른 자세와 발성으로 악곡에 따른 자신의 느낌을 개성 있게 표현하도록 한다. 가사와 가락의 관련을 탐색하면서 그에 따른 느낌을 자연스럽게 나타내도록 한다. 가락, 시김새, 창법을 지도할 때에는 손, 가락선 악보 등을 활용하여 다양하게 표현하도록 한다. 또한, 신체 표현을 중히 여기고 놀이를 통한 학습을 권장한다.

(다) 악기 연주하기에서는 여러 가지 타악기와 가락 악기를 활용한다. 악기는 장구, 소고, 단소, 소금, 가야금 등의 국악기와 트라이앵글, 탬버린, 캐스터네츠, 북, 기타, 건반 악기, 리코더 등의 서양악기 중에서 학생의 흥미, 발달 특성,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지도한다. 국악기를 지도할 때에는 구음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하며, 춤을 활용하여 장단 감을 체득하는 방법을 활용한다.

(라) 음악 만들기에서는 자유롭게 소리를 탐색하고 음악을 창의적으로 만들어 볼 수 있도록 그림이나 기호, 문자, 악보 등을 활용한다. 국악곡 만들기에서는 주로 국악기를 이용하여 국악의 특징을 표현하도록 한다.

(2) 감상

(가) 감상 영역에서는 음악의 요소와 음악의 종류 및 역사,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의 음악의 역할 및 가치를 폭넓게 이해하고 내면화할 수 있도록 한다.

(나) 학생들에게 충분한 음악적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므로 실음을 통하여 음악 용어와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음악 감상을 통해 학생들이 음악에 대한 미적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하며, 악곡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그림, 영상 등 여러 가지 자료를 활용한다. 국악곡을 감상할 때에는 추임새 넣기 등을 통해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음악 감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국악곡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간보와 구음보 등을 활용한다.

(라) 음악사에 대한 학습은 악곡, 인물, 사회 문화적 배경 및 음악사의 전체적인 흐름 등을 다룸으로써 폭넓은 이해와 안목을 갖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3) 생활화

(가) 생활화 영역에서는 생활 속에서 음악을 즐기고, 음악 문화 및 우리 음악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지도한다.

(나) 학교 내외의 음악 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음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방법

| 설문항목 | 매우 그렇 다 | 그렇 다 | 보통 이다 | 그렇 지 않다 | 매우 그렇 지 않다 |
|-----------------------------------------------------------------------------------------------------|---------------|---------|----------|---------------|---------------------|
| 1.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3-4, 5-6, 7-9 학년군 설정에 비추어 볼 때, 음악과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방법이 학교급별 지도로 분류된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 | | | | |
| 2. '내용 영역별 지도'는 각 내용영역(표현/감상/생활화)에 적합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있다. | | | | | |
| 3. 새롭게 포함된 '학년군별 성취기준', [음악 요소 및 개념 체계표], '학습 활동 예시' 에 대한 적절한 활용 지침을 교수·학습 방법에 제시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 | | | |
| 4. 표현 영역의 교수·학습 방법에 있어 악기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창의적인 교수·학습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예, 국악 교수·학습 방법). | | | | | |
| <p>※ 선택 이유 또는 관련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십시오.</p> | | | | | |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평가**

※ 다음 내용을 참고하신 후, 질문에 대해 동의하시는 수준에 v표를 해 주십시오.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11page 중)

6. 평가

나. 평가 방법

(4) 내용 영역별 평가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실시한다.

(가) 표현

노래 부르기, 악기 연주하기, 음악 만들기 등의 표현 활동은 기초 기능, 표현 태도 등을 고려 반영하여 평가한다.

(나) 감상

음악에 관한 포괄적 이해의 정도와 태도 등을 평가한다.

(다) 생활화

학교 내외의 음악 활동에 참여하는 정도, 음악에 대한 태도와 생활화의 실천 정도 등을 평가한다.

| 설문항목 | 매우 그렇 다 | 그렇 다 | 보통 이다 | 그렇 지 않다 | 매우 그렇 지 않다 |
|-------------------------------------------------------------------------|---------------|---------|----------|---------------|---------------------|
| 1. 교육과정 내용체계에서 이해 영역이 삭제됨으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의 이해 영역에 대한 지필평가는 사실상 무의미하게 느껴진다. | | | | | |
| 2. 평가 방법의 내용 중 각 영역에 대한 '태도'는 평가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 | | | | |

※ 선택 이유 또는 관련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십시오.

| 2009 개정 교육과정과 음악과 교육과정 전반 | | | | | |
|--------------------------------------------------------------------------|---------------|---------|----------|---------------|---------------------|
| ※ 다음 질문에 대해 동의하시는 수준에 V표를 해 주십시오. | | | | | |
| 설문항목 | 매우 그렇 다 | 그렇 다 | 보통 이다 | 그렇 지 않다 | 매우 그렇 지 않다 |
| 1.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내용은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방향 중 하나인 '창의 인재 육성'에 적합하게 개정되었다. | | | | | |
| 2.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방향 중 하나인 '음악의 생활화'를 위해 효과적으로 개정되었다. | | | | | |
| 3.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은 '미래사회에서 요구하는 핵심 역량 ³²⁾ 을 잘 반영하고 있다. | | | | | |
| 4.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은 학년군 설정에 따른 '교육과정의 명료화'가 적절히 이루어졌다. | | | | | |
| 5. 음악교과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 강조하는 집중이수제는 음악교과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 | | | | |
| <p>※ 선택 이유 또는 관련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십시오.</p> | | | | | |

32)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방향, 추구하는 인간상, 학교급별 교육목표에 함의된 핵심역량은 창의성,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정보처리능력, 대인관계능력, 자기관리능력, 기초학습능력, 인성, 시민의식, 국제사회문화이해, 진로개발능력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박순경 외, 2010)